차 례

제 1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따라배우자

이 판은 《**김정일**장군님혁명활동연구실》도록 총서판입니다.

이 판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자면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깊이 체득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력사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랜 기간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김정일**장군님혁명활동연구실》도록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력사가 폭넓고 깊이있게 담겨져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

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가장 충직하게 받들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오신 충실성의 력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수십성상에 걸쳐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혁명가의 빛나는 력사입니다.

특히 우리 인민이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이후 제국주의자들과 생사를 판가리하는 치렬한 대결전을 벌리던 준엄한 시기에 독창적인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는 가장 숭고한 동지애와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지니시고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리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과 열렬한 사랑의 력사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는 우리 시대 혁명하는 사람들의 삶과 투쟁의 참된 교과서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힘있는 사상정신적무기입니다.

모든 학생청년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자신을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제 2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은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할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민족의 일대 경사였고 대통운이였으며 전인류적인 사변이였다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어린시절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백두산은 나의 고향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31(1942)년 2월 16일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시던 시기는 세계적범위에

서 인민들의 반파쑈해방전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주동적으로 마련되여가고있던 격동적인 력사의 전환기였습니다.

이 시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백두산밀영을 중심적령도거점으로 삼으시고 다가오는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해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시면서 일제격멸을 위한 최후결전에로 전체 인민을 총동원하기 위한 전민항쟁을 성숙시켜나가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신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최대의 크나큰 경사였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전쟁의 불길속에서 백두산의 아들,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뜻을 이어가실분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조선의 미래의 태양이 되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백두광명성》이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 이 사진은 항일유격대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을 칭송해서 아름드리나무들에 새긴 구호문헌의 일부입니다.

이 구호문헌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것처럼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격정과 흥분을 누를길 없어 밀영주변과 국내각지의 나무들에 글발들을 새

겨 민족의 대행운을 맞이한 크나큰 환희와 조국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크나큰 기대를 표시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50돐을 맞으며 송시를 쓰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백두산밀영에 세운 송시비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81(1992)년 2월 16일 탄생 50돐을 맞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축하하여 다음과 같은 송시를 지으시였습니다.

백두산정 정일봉
소백수하 벽계류
광명성탄 오십주
개찬문무 충효비
만민칭송 제동심
환호성고 진천지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쉰돐인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송시에는 한없이 숭고한 위인의 풍모를 지니시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빛나게 향도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은 칭송과 커다란 만족감, 크나큰 기대, 두터운 신뢰와 념원이 담겨져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 향도의 태양이 솟아오른 민족의 대경사였고 인류의 밝은 미래를 기약해준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제 3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가정은 가장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가정이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가정에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가정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을 아버님으로,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을 어머님으로 모신 력사에 류례없는 애국, 애족, 애민의 위대한

혁명적가정입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탁월한 령도로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시였습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어버이수령님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이 땅우에 인민이 주인된 주체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온 세계 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세계정치의 대원로,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어머님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어려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오로지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우리를 수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나가도록 키우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신 항일의 녀성영웅이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일가는 대를 이어 나라와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쳐 싸워온 위대한 혁명일가, 애국일가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만경대가문은 대대로 나라에는 애국충정을 바치고 혁명사업에는 헌신하며 부모에게는 효도를 다하는 가문입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관디엔(관전)회의를 지도하시는 할아버님이신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이십니다.

할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은 지원의 높은 뜻을 지니시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신 우

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으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무기를 운반하여오시는 할머님이신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녀사이십니다.

할머님이신 강반석녀사는 조국의 광복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신 혁명투사이시였으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삼촌이신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선생님이십니다. (오른쪽에 계시는분)

삼촌이신 김철주선생님도 일찍부터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여 조국광복을 위해 적들에게 희생되는 마지막순간까지 굴함없이 싸우신 열렬한 혁명투사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외할아버님이신 김춘산선생님은 반일독립운동에 한몸바치신 반일애국투사이시였으며 외삼촌들이신 김기준, 김기송선생님들도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열렬한 혁명투사들이시였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일가분들모두가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열렬히 싸우신 애국적이고 인민

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찍부터 인민의 령도자, 민족의 위대한 아들로서의 풍모를 갖추고 성장하실수 있게 한 고귀한 터전으로 되였습니다.

제 4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뛰여난 천품을 지니고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린시절부터 지니신 남달리 뛰여난 천품에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의 뜻을 따라 백두산에 오르실 결심을 다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리실 때 백두산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하시면서 아버님의 뜻을 따라 백두산에 오르실 결심을 다지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사물현상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과 명확한 분석력, 다양한 사물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정확히 가려내는 비상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김정일**조직비서의 비범한 관찰력과 통찰력, 분석력과 판단력, 과학적인 예견의 명중성은 그의 특출한 천품입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닭이 물을 먹을 때 왜 머리를 쳐드는가를 관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36(1947)년 가을 어리신 장군님께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지도의 길을 따라 어머님과 함께 함경북도 경성군에 가계실 때 있은 일입니다.

그때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닭에게 모이를 주시다가 닭이 물을 먹을 때 목을 하늘로 쳐드는것을 보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이것이 신기하게 생각되시여 닭들을 따라다니시며 세심히 살펴보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드디여 닭이 물을 물고 인차 목을 곧추 쳐드는것은 물을 빨아먹지 못하기때문에 목을 쳐들어 물이 입안으로 흘러들게 한다는 리치를 알아내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셈세기공부를 잘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느날 유치원 셈세기공부시간에 있은 일이였습니다.

교양원은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된다는것을 가르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하나에다 하나를 합치면 둘이 될 때도 있고 하나가 될 때도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교양원은 어떤 때 하나가 되는가고 물었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제 진흙을 빚어 땅크를 만들면서 내가 빚은 진흙덩이에 동생이 빚은 진흙덩이를 합치니 둘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였고 꽃밭에 물을 줄 때에도 먼저 떨어진 물방울에 다른 물방울이 합쳐져 하나의 물방울이 되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하나에다 하나를 합하여 하나가 될 때에는 그저 하나가 되는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여럿이 합하여 하나가 될 때에는 굉장히 큰 하나가 됩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그러시고는 우리 어머님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인민의 힘은 아무리 합쳐도 하나가 된다고 가르치시였다고 하시면서 한마음으로 장군님을 받드는 우리 인민의 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세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린시절에 벌써 진지하고 세밀한 관찰로 지구는 어떻게 생겼으며 왜 도는가, 눈비는 왜 오며 바람은 왜 부는가, 검은 꽃은 왜 없는가 등 자연현상과 지주, 자본가는 로동자, 농민들을 어떻게 착취하는가, 당이란 무엇인가 등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 비밀을 밝혀내신 이야기는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전해져 오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리실 때부터 모든 문제를 혁신적으로 보는 창조적사고력,

크나큰 담력과 억센 기질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을 그대로 닮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남달리 대담하시였으며 무슨 문제나 혁신적으로 통이 크게 생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방후 우리 로동계급이 처음으로 만들어 바다에 띄운 철선을 보시면서 앞으로 더 크고 훌륭한 배를 만드실 꿈을 키우시였습니다.

그리고 해방후 어느날 어머님과 함께 만경봉에 오르시여 평양쪽을 바라보시며 앞으로 10층, 20층, 50층, 100층짜리 집도 짓고 만경봉에서 평양까지 무지개다리를 놓아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훨훨 날아다니게 할 담대하고 통이 큰 궁냥을 하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일단 시작한 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힘으로 끝장을 보고야마는 강의한 기질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어린시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스키타는 법을 익히시자 련습을 거듭하시여 낭떠러지에서 날아내리는 동작을 끝내 완성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한없이 검박하고 소박하며 겸손한 품성과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실 때에 남들과 같이 언제나 면양말에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신고 걸어다니시였습니다.

옷도 남들이 입은 수수한 옷을 입으시고 동무들과 꼭같이 책보를 들고다니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동무들과 함께 놀고 공부하는것을 제일 좋아하였습니다. 새 책을 구했을 때에도 동무들과 같이 나누어보았으며 색다른 음식이 생겼을 때에도 동무들과 같이 나누어먹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리실 때부터 동무들을 위해서는 자신의것을 아끼지 않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동무들에게 따발총을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언제인가 한 일군이 어리신 장군님께 멋진 놀이감따발총을 사다드렸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해하시며 어머님께 동무들과 미국놈쏘기놀음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밖으로 달려나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빈손으로 들어오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놀라시며 따발총을 어떻게 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자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다 부러워하기에 모두 함께 가지고 놀라고 주었다고 말씀드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동무들에게 도마도를 나누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따발총과 도마도만이 아니라 집에 놀러 온 동무들에게 자신의 옷도 입혀주시고 여러가지 물건들도 서슴없이 안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동무들이 당하는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동무들의 기쁨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자전거경기에서 넘어진 동무를 일으켜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37(1948)년 6월 1일 도산리유치원에서 국제아동절기념운동회 자전거경기에 참가하시여 맨 앞장에서 달리시다가 뒤따라오던 한 동무가 넘어지자 자전거를 멈추시고 그를 부축하여 일으켜주신 다음 달리기를 계속하시여 만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린시절부터 지니신 남달리 뛰여난 이러한 천품은 그이께서 일찌기 위대한 혁명가,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품격을 완벽하게 갖출수 있게 한 고귀한 바탕으로 되였습니다.

제 5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부모님의 혁명적교양과 영향을 받으시며 성장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린시절에 위대한 부모님의 혁명적이며 세심한 교양과 영향을 받으시며 자라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부모님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리실 때부터 부모님들의 혁명적이며 세심한 교양을 받으시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 큰 뜻을 키우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아버님의 세심한 교양에 의하여 어려서부터 열렬한 애국심과 높은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지니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만경봉에서 아버님으로부터 혁명적교양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아버님으로부터 할아버님께서 지니셨던 지원의 높은 뜻과 대대로 나라와 혁명에 몸바쳐온 만경대혁명일가분들, 항일혁명선렬들과 아동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린 가슴속에 고귀한 혁명정신을 키우시였고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 결심을 굳게 다지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농민들의 농사일을 헐하게 해주시려고 결심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35(1946)년 어느날 어리신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평안남도 대동군의 한 농촌에 나가시였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용드레로 물을 푸는 농민들을 보시면서 기계로 농사를 지을 앞날의 농촌에 대하여 생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특히 어머님으로부터 혁명적교양과 영향을 많이 받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는 늘 너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장군님을 더 잘 모시고 장군님의 말씀을 더 잘 받들어나가겠는가, 오직 이 한가지 생각만을 하여야 한다, 이

렇게 하는것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 아버님의 뜻을 굳건히 잇게 하시려는것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 늘 품고계신 소원이였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님께서는 일찍부터 어리신 아드님께 만경대와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에서 우리 말을 배울 때에 **김일성**장군이라는 말부터 배워주신 어머님의 숭고한 뜻과 어버이수령님을 해님으로 높이 모시고 언제나 해바라기처럼 따르며 아버님의 뒤를 꼭 이어야 한다고 하신 어머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흠모심을 깊이 간직하시였으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 굳은 결심을 지니게 되시였습니다.

그리고 실천적모범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을 진심으로 받드시고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신 어머님의 숭고한 모습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으시며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위대한 부모님의 뛰여난 사격술을 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 통일의 념원

을 담아 삼일포에 울리신 총소리는 어리신 장군님의 가슴속에 영원히 잊을수 없는 추억을 남기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 드릴 장군복이 완성되였을 때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께 장군복에 담겨진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들의 념원을 알려주시면서 이 군복을 입고 우리 나라를 튼튼히 지키겠다는 굳은 마음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머니, 저는 꼭 아버지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나라의 용감한 장군이 되겠어요.》라고 대답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어머님의 일손을 도우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자주 어머님과 함께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가시여 어머님의 일손을 도우시였으며 평양 미림벌에 나가시여서는 모내기를 하는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 모춤도 나르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현실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남다른 자질과 성품을 더욱 훌륭히 키워나가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항일대전의 총포성과 백두산의 눈보라를 자장가로 들으시며 생활의 첫자욱을 떼시였고 항일혁명투사들속에서 성장하시면서 어려서부터 대바르고 배짱이 센 품성을 키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김정일**이 어려서부터 대가 바르고 배짱이 센 품성을 지닐수 있은것은 선천적인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신념이 강한 투사들의 품에서 투쟁과 생활의 참다운 진리를 배우며 아무런 구김살도 없이 씩씩하게 살아왔기때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의 그 나날에 벌써 총다루는 방법을 배우시였고 스키를 타시면서 총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의 현지지도의 길을 따라 걸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방후 부모님을 따라 여러 도시들과 농촌들에 나가시여 어버이수령님을 따르는 인민들의 불타는 마음과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선 드높은 건국열의, 불굴의 투쟁모습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으시였으며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 마음을 굳게 다지시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부모님의 혁명적 교양과 영향, 조선혁명의 준엄한 나날들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였습니다.

제 6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아버지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조선을 제일로 빛내여 나가실 큰뜻을 키우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린시절부터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위하여 힘쓰시였으며 조선을 제일로 빛내여나가실 큰뜻을 키우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위하여 힘쓰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한가정의 아버님으로뿐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였습니다.

해방후의 어느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하는 한 일군으로부터 지금 전국각지에서 인민들이 수령님께 매일과 같이 수많은 감사편지를 보내여오고있다는 말을 들으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께 아버님은

태양과 같은분이시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앞으로 영원히 어버이수령님을 잘 모시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그러하셨기에 글을 써도 《**김일성**장군 만세!》부터 쓰시고 노래를 불러도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제일 즐겨부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무척 애쓰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은방울꽃을 좋아하신다는것을 아시고 철을 앞당겨 피워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수령님께 드리신 이야기, 어버이수령님께서 딸기를 좋아하신다는것을 아시고 겨울철에도 수령님께 향기로운 딸기즙을 대접하시려고 그처럼 애쓰신 이야기들은 어리신 장군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극하시였는가를 길이 전해주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어버이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해방후 비바람이 세차게 불던 어느날 밤이였습니다.

잠에서 깨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어머님의 찬 손을 잡으시고 어디 갔다 오시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날씨가 사나와서 집주변을 돌아보고 들어온다고 대답하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밤이 계속되여 더는 같은 대답을 할수 없

게 되신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어머니는 아버님을 보위하는 경위대원이란다.》라고 말씀해주시였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마음속깊이 새기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다음날 저택정문에 나가시여 나무총을 들고 차렷자세로 서계시였습니다.

이러한 아드님을 보신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왜 그렇게 서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자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나도 아버님을 보위하는 경위대원이예요.》라고 대답하시였습니다.

그날부터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스스로 맡아나선 《경위대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시였습니다.

보초병과 함께 정문에서 아버님을 바래워드리고 마중하여드리시는것은 물론이고 정원을 오가시거나 군사놀이를 하실 때에도 주변에 이상한 징조가 없는가 하는것을 세심히 살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께서 다니시는 길에 모래를 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들추지 않도록 집으로 오가는 길에 모래를 펴기도 하시고 무더운 여름날에는 물을 뿌리기도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침실창가에 쑥불을 피워 모기떼를 쫓아버리기도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께 드릴 새털베개를 마련

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주체36(1947)년 봄 어느날 어머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 드릴 새털베개를 마련하시느라 애쓰시는것을 보시고 자신께서 키우시는 새에서 보드라운 털을 뽑아 어머님께 드리시였습니다.

그 한줌의 새털은 베개속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적은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의 건강을 바라시는 어리신 장군님의 충정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비길데가 없었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장대로 새들을 날리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어느날 이른새벽이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소란스럽게 들려오는 참새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여나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발자국소리를 죽여가며 뒤울안으로 가시여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대로 느껴지는 긴 장대를 잡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문 얼마간이라도 더 편히 주무시기를 바라시며 장대로 참새떼를 날려보내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조선을 제일로 빛내여나가실 큰뜻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아버님의 뜻을 이어나갈 마음을 다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어버이수령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분이시라는것을 가슴깊이 새기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들과 함께 조선을 제일로 빛내여나가겠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우리 나라를 빛내여나갈 큰뜻을 키우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우리 나라를 튼튼히 지킬 마음을 굳게 키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에 군사놀이를 매우 즐겨하시였으며 부모님들과 항일혁명투사들로부터 백두산에서 일제놈들과 싸우던 이야기를 듣는것을 제일 좋아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장군복》을 입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장군복을 입으시고 주체37(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열병식장에 나가시였습니다.

이날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지축을 울리며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열병대오의 씩씩하고 름름한 모습을 보시다가 아드님께 우리 인민이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이 좋은 세상에서 잘살자면 인민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심중히 들으시던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빨리 커서 우리 인민군대를 세상에서 제일 센 군대로 만들고 우리 나라에 그 어떤 놈도 덤벼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입으셨던 《장군복》 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인민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실 큰뜻을 키우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실을 뽑는 누나들의 손이 트지 않게 해주시려고 생각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36(1947)년 4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평양제사공장(당시)을 찾으시였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갓 해방된 때여서 제사공장 누나들의 일터는 그리 좋지 못하였습니다.

조사공누나들의 손은 뜨거운 물에서 고치를 다루느라고 온통 부풀고 터갈라져있었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힘들게 일하는 로동자들을 위해주고싶으신 생각을 금할수 없으시였습니다.

이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댁에 돌아오셔서도 제사공장 누나들의 터갈라진 손을 잊을수 없으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주무시지 않고 어버이수령님을 기다리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밤이 퍽 깊어서야 댁에 돌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 손이 트는데 바르는 약을 많이 구해달라고 말씀드리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도서 《**김정일**장군님의 어린시절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어려서부터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시였으며 조선을 제일로 빛내여나가실 큰뜻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제 7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 미제원쑤놈들을 쳐부실 신념과 열렬한 조국애를 깊이 간직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침략자 미제원쑤들을 쳐부실 불굴의 신념과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열렬한 조국애를 깊이 간직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원쑤놈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지니시고 원쑤들을 쳐부실 신념을 더욱 굳히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사람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간직할수 없었던 가장 고귀한것을 체득할수 있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은 나의 생활에서 잊을수 없는 력사적시기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괴뢰도당을

부추겨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찌기 백두산에서 일제놈들을 쳐부시는 총포소리를 들으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미제와 판가리싸움을 벌리는 전쟁의 불길속을 또다시 헤쳐가게 되시였습니다.

미제는 전쟁의 불을 지르자마자 악착한 승냥이의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6월말 미제공중비적들은 평양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차별폭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인민군고사총좌지가 자리잡은 내각청사의 지붕우에 오르시여 불타는 평양시내를 바라보시였습니다. 평화롭던 수도의 거리와 살림집들, 공장과 공원들이 순식간에 파괴되고 연기와 불기둥이 온 도시를 뒤덮고있었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의 천인공노할 야수적인 폭격만행을 목격하시면서 원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끓어오르는 적개심을 금치 못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해방된 남반부의 도시와 마을을 찾아 오각별을 붙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아침저녁으로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들으시면서 원쑤를 쳐부시는 통쾌한 마음으로 인민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남반부의 도시와 마을들을 찾아 지도에 오각별을 붙이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 매일같이 별을 붙여나가시는 조선지도는 전선형편과 인민군대의 전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생동한 작전도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전략적일시적후퇴의 나날 일찌기 할아버님과 아버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걸으신 그 험한 천리길을 걸으시면서 우리의 거리와 마을을 재더미로 만든 미제에 대한 적개심을 깊이 간직하시였고 싸우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통하여 승리한 조국의 앞날에 대한 신심을 굳히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미제원쑤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굳은 결심을 다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일행이 청천강을 지나 어느 한 산간마을에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마침 날이 밝아 일행은 개울가에 자리를 잡고 야전밥통들을 꺼내여 아침식사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운전사는 손도끼를 찾아들고 야산에 올라 청솔가지도 꺾고 불 잘 붙는 가느다란 참나무들도 골라찍으며 땔감을 마련하고있었습니다.

그때 삭정이를 주으시다가 도끼소리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시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운전사의 팔을 붙드시며 성한 나무를 왜 찍나요, 후퇴를 한다고 해서 그럽니까, 이 땅을 우리가 적들에게 내주는것으로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어요라고 하시면서 **《이 귀중한 땅과 이 귀중한 숲은 영원**

히 우리의것으로 남아있을거예요.》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장자산에 계시면서 승리한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며 나무 한그루, 물고기 한마리도 귀중히 여기시며 정성껏 보호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장자산혁명사적지부감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자산에 머물러계신 20여일간은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열렬한 조국애와 전쟁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가슴 불태우신 뜻깊은 나날이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을 이끄시기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을 간직하시였습니다.

그러기에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미국놈들을 때려부시는 마음으로 공부도 군사놀이도 열심히 하시였으며 조국의 자연풍치를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늘 마음쓰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군사놀이를 지휘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동생과 함께 잣나무를 심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당창건 5돐이 되는 10월 10일이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 동생과 함께 장자산 기슭에 두그루의 잣나무를 심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뿌리가 상할세라 보드라운 흙을 구뎅이에 조심히 밀어넣어 정성스레 묻어주시며 이 나무가 큰 다음에 아버님을 모시고 꼭 와보자, 그러면 아버님께서 몹시 기뻐하실거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자산에 오르내리는 길에서 나무뿌리 하나라도 드러난것을 보시면 흙을 덮어주시고 시내가의 물고기 한마리도 귀중히 여기시였습니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자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물고기잡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시고 지금 미국놈들이 마구 폭탄을 퍼부어서 우리 나라 강에 있는 숱한 물고기들이 죽고있는데 우리까지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을 잡으면 되겠는가고 일깨워주시면서 아이들이 막았던 동도 터치고 작은 물고기도 놓아주게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장자산혁명사적지를 참관하는 학생소년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온 강산이 불타던 그 어려운 나날에 장자산에 계시면서 승리한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며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고 물고기 한마리라도 더 기르기 위해 힘쓰시였습니다.

제 8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아버지대원수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학생들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수많은 사변들을 보고 체험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여 조국이 있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1(1952)년 6월 평안북도를 현지지도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여러곳을 돌아보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인민군비행구분대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과 동행하시면서 미제공중비적들과 싸우는 인민군비행사들의 용감한 투쟁모습과 전시식량증산을 위하여 일떠선 농민들의 투쟁모습을 보시였으며 수령님으로부터 락원의 10명당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시였습니다.

특히 주체41(1952)년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최고사령부에 계시면서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군대와 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력과 강의한 의지,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의 생활을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직접 보시였으며 수령님의 발기와 지도밑에 작성된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도 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최고사령부의 작전실에 자주 가시여 많은것을 배우시였으며 인민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계시면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령군술을 가슴에 새기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전적으로 어버이수령님께 달려있으며 수령님께서 계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우리인민은 미제를 때려부시고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으로부터 어버이수령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더 잘 받들어모셔야 한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는 장군님께서

주체41(1952)년 8월에 창작하신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 그리고 주체42(1953)년 6월 어버이수령님께 올리신 편지와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에 뜨겁게 담겨져있습니다.

○ 이 사진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어버이수령님께 올리신 편지와 고전적명작들인 《축복의 노래》와 《조국의 품》, 《모란봉은 불타지 않았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가요와 편지, 일기들에 조국의 품은 곧 어버이수령님의 품이며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은 전체 조선인민과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이며 수령님을 잘 모시고 옹호보위하여야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구원될수 있고 전쟁의 승리도 마련된다는 절절한 뜻을 담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장자산에 계시면서 학습에 열중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습도 생활도 전투적으로 하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분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밤마다 등불을 켜놓으시고 손수 짜놓으신 학습일과표대로 복습도 예습도 하고 숙제도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처럼 어려운 전쟁시기에도 한해동안에 두 학

년에서 배울 내용을 완전히 익히시였습니다.

어느날 한 일군이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이 걱정되여 어서 주무셔야겠다고 말씀올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이 깊은 밤에도 미국놈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전선을 지휘하고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일찌기 잘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버님처럼 훌륭한 일군이 되라고 하신 어머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풍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어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1(1952)년 11월부터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하시면서 학생소년들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김일성장군략전연구소조를 뭇고 장군님께서 걸으시는 포연자욱한 전선

길을 생각하면서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며 수령님의 위업을 받들어 나갈 혁명의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학원의 학생들로 수령님을 따라배우는 연구소조를 결성할것을 발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따라배우는 연구소조를 내오기 위하여 먼저 학생소년들속에서 수령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학습분위기부터 세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에게 몸소 **김일성**장군의 략전내용을 해설해주기도 하시고 연구토론회도 자주 조직하시였으며 소조의 목적도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주체42(1953)년 2월 10일 학급소년단원들의 모임을 여시고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를 결성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를 결성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성하신 략전연구소조의 목적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학습을 통하여 학원학생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조선혁명의 기둥으로 준비시키는것이였습니다.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

사상과 혁명업적, 고매한 덕성을 따라배우는 첫 혁명력사 연구소조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사업이 시작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략전연구소조를 조직하신 후 소조원들속에서 략전독보와 연구발표모임 등 략전의 내용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실속있게 벌리시는 한편 소조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략전연구소조는 점차 학원의 모든 학급들에 조직되여 운영되게 되였으며 어버이수령님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은 날을 따라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잊을수 없는 만경대혁명학원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원생활은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보람차고 뜻깊은 나날이였다. 우리가 학원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학습하고 생활하던 그 나날을 나는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발기와 지도밑에 조직운영된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아들딸로 키우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조활동의 경험과 업적은 그후 어버이수령님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심화시켜나가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습니다.

○ 여기에 있는 《아버지원수님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우자!》 구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43(1954)년에 있은 분단총회에서 내놓으신 구호입니다.

온 나라 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어버이수령님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아들딸로,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억세게 준비해나갔습니다.

제 9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이 학습에 열중하도록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학생들이 학습에 열중하도록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소학교시절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이 사진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공부하시던 삼석소학교와 평양제4소학교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과 삼석소학교, 평양제4소학교에서 소학교시절을 보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학교시절에 조선혁명에 쓸모있는 산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학습에 전심전력하시는 한편 모든 학생들이 학습을 잘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을 위

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여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습은 학생들의 기본임무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습을 잘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하시던 초기 일부 학생들속에서는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가 부족한데로부터 공부를 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대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은 몹시 아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학습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였습니다.

학생들은 앞날의 조선을 위하여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2(1953)년 1월 22일에 열린 제3분단총회에서 올해는 어버이수령님께서 12살의 어리신 나이에 제 나라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김형직선생님의 말씀을 받들고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신지 30돐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말씀하시면서 30년전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셨던 원대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조선의 참된 아들딸로 억세게 준비하기 위하여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는 구호밑에 학습을 더 잘해나가자고 힘있게 호소하시였습니다.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이 구호에는 모든 학생들이

쓸모있는 산지식을 더 많이 배워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을 더욱 빛내여나갈데 대한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습니다.

주체43(1954)년 여름 함경북도일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7월초 어느날 청진시 제8소학교를 돌아보시고 일군들에게 일부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지고있지 못한것은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는가 하는것을 모르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학생들이 언제나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뜻을 품고 공부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는 구호를 제시하시여 학생들이 학습하는 목적을 똑똑히 알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모든 학생들이 학습에 열중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소년단원들의 학습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열심히 학습하여 우리 혁명에 써먹을수 있는 풍부한 지식을 가진 일군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을 학습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습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학급모임에서 싸우는 조선의 소년단원인 우리에게 있어서 학습은 곧 전투이다, 원쑤와 싸워이기기 위하여, 부모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모두다 최우등생이 되자, 모두다 5점의 총창으로 조국과 부모의 원쑤를 갚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호소는 원아들의 심장을 격동시키였습니다.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은 분초를 아껴가며 학습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이 학습준비를 철저히 갖추며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그날 배운것은 그날로 다 알고 넘어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주체42(1953)년 2월 어느날 분단총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에게 그날 배운것을 그날로 소화하고 넘어가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과업과 방도들을 세세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년단조직들에서 수업규률을 어기는 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리도록 하시면서 소년단열성자들이 수업규률을 지키는데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는데도 깊은 주목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이 과외학습을 잘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석소학교에 다니시던 주체42(1953)년 10월초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산수숙제를 하지 못하고 수업에 참가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개길 펑퍼짐한 잔디밭에 이르시자 학생들에게 여기서 숙제를 하고 집으로 가는것이 어떤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숙제를 제때에 하고나면 마음도 거뜬해지고 집에 돌아가 부모들의 바쁜 일손도 도와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의 기본임무는 공부를 잘하는것이다, 공부를 잘하려면 그날에 배운것은 그날로 알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동무들처럼 숙제를 하지 않아 배운것을 머리에 익히지 않아서야 되겠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이 숙제를 제 힘으로 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한편 수업이 끝나면 학습반 또는 학습호조단위로 모여앉아 집체적으로 숙제를 하도록 하시고 소년단열성자들이 꼭꼭 검열하는 제도도 세워놓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속에서는 숙제를 해오지 않는 현상이 없어지게 되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쓰시던 학습장과 책보입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당번을 서실 때 손수 불을 지피신 난로입니다.

한없이 겸허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학교시절에 다른 학생들과 자그마한 간격과 차이도 없이 매우 소박하게 지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보통학생들과 같이 보자기에 책을 싸가지고 다니시였으며 학습장도 수수한것을 쓰시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학생들과 꼭같이 난로당번도 서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소학교시절에 학습과 생활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시면서 학생들을 학습에 열중하도록 이끄시여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키우시였습니다.

제 10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이 조직생활을 잘하도록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소년단원들이 조직생활을 잘하여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아들딸로 튼튼히 준비하도록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소년단 분단위원장사업을 하시던 때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43(1954)년 2월초 평양제4소학교 제1분단에서는 새 분단위원회를 선거하는 분단총회를 열고 전체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분단위원장으로 선거하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의 열광적인 박수를 받으며 교단에 나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의 믿음을 언제나 잊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항일아동단원들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아들이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분단위원장으로 모신것은

조선소년단과 소년단원들이 받아안은 가장 큰 영광이며 더없는 자랑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소년단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여 그들모두를 어버이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 억세게 준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소년단조직들은 모든 소년단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아들딸로 키우며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년단사업에서 기본은 소년단원들을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적극 벌려 그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는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소년단사업의 중심방향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후 처음으로 맞이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기념일에 평양제4소학교 소년단원일동의 이름으로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축원하는 글을

새긴 축기를 올릴것을 발기하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수령님께 드리시였습니다.

○ 이 사진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지도밑에 평양제4소학교 학생들이 어버이수령님께 올린 축기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축기를 받으시고 학생대표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공부를 잘하라고 고무해주시였습니다.

이날의 축기증정식은 매우 소박한 행사였으나 충실성과 사랑의 정 넘치는 화폭으로 길이 전해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을 지으시여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신 끝없는 행복과 자랑을 소년단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소학교시절에 지으신 동시 《우리 교실》 입니다.

소년단원들은 이 동시를 즐겨읊으며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끝없이 따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체득시키기 위하여 김보현증조할아버님과의 상봉모임, 어버이수령님의 어린시절이야기모임, 로작발표모임, 연극공연 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널리 조직하시는 한편 수령님의 사상리론의 독창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

한 덕성에 대하여 자주 해설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우리 인민이 잃었던 조국을 찾고 새 조국을 건설할수 있은것도, 미제와 맞서 싸워이길수 있은것도 다 민족의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을 위대한 수령으로 모셨기때문이라는것을 일깨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이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소년단조직생활은 소년단원들을 사상의지적으로 단련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소년단조직생활을 잘하여야 당의 후비대인 민청원으로 훌륭히 자라날수 있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소년단분단모임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이 조직을 귀중히 여기며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주체42(1953)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분단모임에 참가하기 위하여 모인 소년단원들에게 분단모

임에는 누구도 빠져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조직의 몸이다, 우리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 자기를 생각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년단넥타이를 주머니에 넣고다니는 학생을 보시고는 붉은넥타이는 걸치레가 아니라 조선소년단원의 영예로운 상징이라고 하시면서 붉은넥타이에 담겨진 깊은 뜻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주체42(1953)년 2월 중순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날씨가 춥다고 하여 아침운동에 빠진 소년단원을 만나시여 아침운동에 한번 빠지면 두번 빠지고싶고 그렇게 되면 점차 규률생활에서 뒤지게 된다고 일깨워주시고 아침체조에 빠진 문제에 대하여 반성회에서 비판하고 앞으로는 규률을 위반하는 현상이 없어야 하겠다고 타이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년단원들에게 분공도 수시로 주시고 사회정치활동과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널리 조직하시여 분단이 늘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소년단조직생활에서 중요한것은 조직에서 주는 과업을 책임적으로 끝까지 수행하는것입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전사자유가족을 도와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가족들을 돕는것을 분단위원회의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시였습니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전사자유가족할머니의 집을 찾으시여 무너진 담장도 쌓고 굴뚝도 다시 세우시였으며 땔나무도 해드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소년단 및 분단열성자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들이 학습과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시였으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움직이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속에서 소년단원들은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나어린 아들딸로 튼튼히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제 11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고 학습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학생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고 학습에서 주체를 세우도록 이끄시여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키우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3(1954)년 9월부터 평양제1중학교에서 공부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중학교시절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진행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을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따라배우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에서 기본은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활동을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입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7(1958)년 9월과 주체48(1959)년 4월 학교초급일군들과 학생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를 따라배우는것은 혁명전통교양에서 기본핵이라고 일깨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사업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로써 주체44(1955)년 4월에 만경대와 칠골혁명사적지에 대한 참관사업을 조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주체45(1956)년 5월에 백두산지구의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행군을 진행할것을 발기하신데 뒤이어 6월 5일 평양제1중학교 혁명전적지답사단을 이끄시고 평양을 출발하시였습니다.

이 로정도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신 평양제1중학교 혁명전적지답사단은 주체45(1956)년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혜산, 보천보, 삼지연, 리명수 등 백두산지구의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행군을 진행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행군하면서 보천보와 삼지연을 비롯한 혁명전적지들을 답사하였습니다. 혁명전적지들을 답사하면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느끼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혁명전적지답사대오를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이 답사행군은 우리 나라에서 백두산지구의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의의깊은 답사행군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과 혁명가요보급, 출판물에 실리는 혁명전통교양자료들과 문예작품을 통한 혁명전통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혁명전통교양에 리용하신 회상실기들입니다.

○ 이 사진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도하신 모란봉 우등불모임장소와 평양제1중학교에 대한 《소년신문》 보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청소년들이 출판물에 실리는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를 널리 학습하도록 하시면서 주체48(1959)년 4월에는 그에 대한 시범연구발표모임을 조직하시고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보천보전투승리 18돐을 맞으며 주체44(1955)년 6월에는 모란봉에서 우등불모임을 조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예술소조활동과 예술작품감상을 통한 혁명전통교양에도 큰 의의를 부여하시였으며 혁명가요합창경연을 조직하시고 혁명가요를 널리 보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감상모임도 자주 조직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일하며 배우며 살자!》**라는 구호밑에 학생들이 학습과 생활에서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학생청소년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그들이 항일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 앞장서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이 학습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이끄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공부하시던 평양제1중학교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제1중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학생들이 학습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적극 힘쓰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5(1956)년말 학생들에게 지금 교과서들에는 다른 나라의것을 본딴것이 많은것만큼 우리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려면 그것을 기계적으로 외울것이 아니라 주체성있게 배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옳은 학습관점과 방법을 가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6(1957)년 9월 13일 평양제1중학교 민청초급단체총회에서 하신 결론에서 **《우리의것을 더 잘 배우고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학습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것을 더 잘 배우고 빛내이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학습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이 우리 당 정책과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우리 나라의 력사, 문화, 지리, 미풍량속 등 우리의것을 열심히 배우면서 다른 나라의것을 우리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게 소화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이 과외활동에서도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여러가지 과외연구소조를 내오시고 그들이 식물을 하나 연구해도 우리 나라의 식물을 연구하며 기술을 하나 배워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기술을 배우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화학실험실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학습하시던 모란봉학습터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의 과외활동에서 또한 다른 나라의 춤과 노래와 그림만을 좋아하는 사대주의적관점을 버리고 우리의 춤과 노래와 그림을 더 잘 배우며 익히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을 이끄시고 공장, 농촌견학과 등산 등을 자주 조직하시여 그들이 우리 나라의 현실을 잘 알고 현실속에서 우리의것을 더 잘 배우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황철의 용해공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교에서 실험, 실습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교재에서 배운 내용을 실험도 해보고 자동차나 전동기를 수리하고 운전도 해보면서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배우고 자기 힘으로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습성도 키우게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생산실습에 참가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학생들의 학습에서 주체가 철저히 서게 되였습니다.

제 12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학생들속에서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적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동생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학시절에 소년단, 민청사업을 지도하시면서 학생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

시였습니다.

《당적사상체계는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체계입니다.》

당적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는 1950년대 중엽에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당과 혁명에 도전해나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과 관련하여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늘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과학성을 해설해주시면서 오직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을 지침으로 삼고 나가야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일깨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학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과 어긋나는 현상과는 조금도 융화하지 말고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으며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을 폭로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5(1956)년 5월 제1차 5개

년계획전망에 대한 강연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교묘한 방법으로 비방중상하는 당시 교장이였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의 궤변을 즉석에서 단호히 반박하시고 학생들에게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그 정당성을 해설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6월에는 향토사연구를 내세우면서 지방주의를 고취하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궤변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항일의 혁명전통을 따라배울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사상을 옹호고수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꾸준한 교양과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학생들속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려는 정치사상적각오가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으며 학교안에서 당정책관철을 방해하려던 종파분자들의 교활하고 음흉한 책동이 분쇄되였습니다.

○ 이 사진은 평양남산고급중학교 강당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종파주의의 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밀접히 결부시켜 힘있게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초급일군들과 민청원들에게 종파의 반동적본질과 죄행, 주체45(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조직적으로 청산한 우리 당의 조치의 정당성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7(1958)년 6월 27일에 학교민청총회를 소집하시고 이 회의가 학생청년들속에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뿌려놓은 사상여독을 뿌리빼기 위한 일대 사상투쟁의 마당으로 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청년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으시고 학생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민청원들속에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민청단체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청년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자!〉, 이것이 현시기 당의 요구이며 민청원들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 이 사진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학생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발표하신 연설문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7(1958)년 9월 학교민청총회를 여시고 《민청원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결론에서 《청년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고 당적사상체계의 혁명적본질과 그 확립을 위한 투

쟁과업을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적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은 첫째도 둘째도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민청원들을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게 하며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민청원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첫째도 둘째도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청총회에서 하신 결론은 학생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의후 민청단체들이 학생들속에서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도록 하시는 한편 학교에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을 잘 꾸리도록 하시고 그것을 거점으로 수령님의 혁명력사 학습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전통교양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활동연구모

임에 참가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학생들을 이끄시고 여러차례 찾으셨던 국립중앙해방투쟁박물관(오늘의 조선혁명박물관)이며 이 사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셨던 리수복영웅의 집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학생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적극 벌어짐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를 구현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서가게 되였습니다.

제 13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교민청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학교민청사업을 새롭게 발전시키시여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도록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학교시절에 학교민청사업을 책

임지고 지도하시면서 민청사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력적인 조직정치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민청열성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청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던 책상과 걸상을 비롯한 비품들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교민청단체의 임무를 새롭게 밝히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청총회에서 하신 연설원고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모든 민청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지식있고 능력있는 믿음직한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는것, 이것이 바로 학교민청위원회의 임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지식있고 능력있는 믿음직한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는것을 학교민청위원회의 기본임무로 제시하시고 민청이 민청원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동맹생활지도, 학습과 소년단사업에 대한 지도의 4가지 과업을 튼튼

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민청위원회의 임무와 과업은 민청사업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교민청사업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인 조직정치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조직들이 학생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민청초급단체는 민청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무슨 과업이 제기되든지 다 사상교양사업을 벌려 민청원들의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은 사상교양단체인것만큼 사상사업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하며 교양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민청단체들이 민청원들을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정책,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것을 사상교양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원들속에서 진행하는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연구토론회, 감

상발표모임, 해설모임, 웅변대회, 이야기모임, 상봉모임, 우등불모임, 시랑송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영화감상모임을 조직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조하신 사상교양의 새로운 형식과 참신한 방법은 민청사업에 활기를 주고 민청원들의 사상의식을 개변하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조직들이 민청원들의 동맹생활지도를 잘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교민청조직들로 하여금 민청원들의 학습열의를 높이는것을 동맹생활지도의 중요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일깨워주시면서 그를 위한 여러가지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민청에서 모든 학생들이 다 참가할수 있게 여러 학과목들의 소조와 과학기술소조를 조직하도록 하시고 학교민청위원회가 과외소조활동을 장악지도하는 새로운 체계를 세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조직들이 또한 민청원들속에서 자각적인 조직생활기풍을 세우는데 큰 힘을 넣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민청원들속에서 자각적인 조직생활기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조직들이 민청원들속에서 민청원의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동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8(1959)년 1월 겨울방학기간에 집중강습을 조직하도록 하시고 몸소 강습제강을 짜시여 강의에 출연하시였으며 여러날에 걸쳐 진행한 강습을 세심히 보살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조직들이 동맹원들에게 분공을 빠짐없이 주고 그 수행정형을 수시로 알아보고 적극 도와주도록 하시는 한편 모든 동맹원들이 비판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비판과 자기비판에 적극 참가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6(1957)년 가을 동무들과의 우정에 금이 갈가봐 결함있는 민청원들에 대한 비판을 할수 없다고 제기한 초급단체위원을 만나시여 동무들의 결함에 대한 비판을 꺼려하는것은 참다운 동지적사랑이 아니라고, 그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깨우쳐주시여 원칙적비판을 하도록 하시였으며 비판받은 학생들중에서 비판을 고깝게 생각하면서 비판한 동무를 멀리하는 학생의 잘못도 일깨워주시여 비판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을 세워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청원들을 교양하신 곳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비판과 자기비판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민청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이 높아지고 자각적인 동맹생활기풍이 확립되였으며 민청원들은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혁명적으로 단련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교민청위원회와 민청초급단체를 튼튼히 꾸리고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위원회를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고 동맹원들속에서 신망이 높으며 사업을 패기있게 조직전개할수 있는 핵심들로 꾸리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수많은 초급일군들을 맡아 교양하시고 강습도 조직하시여 그들의 정치적식견과 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이 소년단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새로운 체계를 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6(1957)년 2월 상급학년의 준비된 민청원들이 아래학년 분단지도원들을 도와 소년단분단들을 맡아 지도하는 보조분단지도원제를 새롭게 내오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도서 《소중한 추억》에 실린 글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민청사업은 지난날의 형식주의적인 낡은 틀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활기있게 진행되였으며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습니다.

제 14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학생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투쟁에 적극 참가시켜 혁명적으로 단련시키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남산고급중학교시절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청년들이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도시로 일떠세우기 위한 건설사업에 떨쳐나 자신을 튼튼히 단련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평양대극장모형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혁명의 수도 평양을 웅장화려하게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자신을 튼튼히 단련함으로써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청년들을 수도건설에 적극 참가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단체들이 학생청년들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과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로력투쟁에 적극 참가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깊이 해설침투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체47(1958)년 5월 3일 학교민청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수도건설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 수도건설에 참가하는 기간 민청단체들이 진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주체47(1958)년 5월 5일에는 내각결정 제17호를 지지하는 평양제1중학교 학생, 교직원 궐기대회에서 하신 연설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투쟁에 모든 힘을 다 바치자》에서 학생청년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47(1958)년 5월 5일에 하신 연설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청년들이 수도건설전투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우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시 2만세대살림집건설을 위한 부재생산전투장에 나가시여 학생청년들과 함께 일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평양시 2만세대주택건설에 참가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여 학생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시고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능숙하게 조직하시여 기준속도를 훨씬 뛰여넘는 집단적혁신이 일어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평양학생소년궁전건설과 대동강호안공사장에서 능숙한 조직정치사업과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학생청년들을 로력적위훈에로 적극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도건설에 참가하신 전기간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하시였으며 깊은 밤에도 쉬지 않으시고 작업장에 나오시여 다음날 작업준비를 빈틈없이 해놓군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보람찬 로동의 나날에 학생청년들이 청춘의 정열과 창조적지혜를 사회주의건설에 남김없이 바치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정신과 난관을 이겨내는 강의한 의지를 소유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청소년들이 사회주의건설에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광범한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장에 적극 진출하여 로력적위훈을 세우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청년학생들은 사회주의건설을 로력적으로도 지원하는 한편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벌려 물질적으로도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에 학생청소년들이 적극 참가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의 첫시기에 소년단원들속에서 벽돌모으기운동을 벌린 경험을 살려 《소년》호기중기를 마련하여 수도의 살림집건설장에 보내주기 위한 운동을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주체46(1957)년 2월부터

소년단원들속에서 꼬마5개년계획활동을 적극 벌리여 사회주의건설에 커다란 도움을 주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밖에도 학생청소년들속에서 파고철수집운동, 토끼기르기운동, 나무심기운동과 같은 좋은일하기운동들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청소년들이 농촌을 로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면서 모내기철과 가을철에는 친히 학생들을 이끄시고 순안농장에 나가시여 농장원들의 일손을 힘껏 도와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순안농장 벼가을을 도우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끄심속에서 학생청소년들은 이런 활동과정을 통하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긴요한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빛나는 위훈을 세우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7(1958)년 3월 18일 민청중앙위원회 일군에게 청년들은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를 발기하고 세상을 들었다놓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면서 살아야 사는 보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민청단체들이 청년들을 발전소나 철길건설장같은 어렵고 긴요한 건설장들에 대중적으로 진출시키기 위

한 사업을 조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청년들이 강계청년발전소건설장과 해주－하성사이의 넓은철길공사장을 비롯한 어렵고 긴요한 전투장들에 용약 진출하여 영웅적위훈을 떨치고 세상을 놀래우는 건설속도를 창조하였습니다.

○ 이 사진은 평양시복구건설에 동원된 평양제1중학교 학생들과 해주－하성사이 철길공사장으로 떠나는 청년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청년건설자들의 전투장을 찾으시여 그들의 로력적위훈을 축하해주기도 하시고 지도일군들에게 전투지휘방법과 다양한 정치선전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47(1958)년 3월 민청중앙위원회 전문, 대학생부장과 한 담화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이끄시던 나날에 조직과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능숙한 수완과 지도능력을 체득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나날에 학생청년들과 인민들속에서 청년운동의 지도자로서의 높은 존경과 흠모를 받으시게 되였습니다.

제 15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학생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대학생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유능한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시키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9(1960)년 9월 1일 주체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대학시절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이 사진은 **김일성**종합대학 본관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종합대학에 첫자욱을 옮기시던 날 룡남산마루에 오르시여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실 확고한 결의를 다지시고 대학시절을 그 준비를 갖추는

계기로 만들것을 굳게 결심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에서 과학탐구에 전심하시면서 대학생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유능한 혁명인재로 준비시키는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유능한 혁명인재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대학생들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는 문제가 우리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여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대학생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에 선차적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1(1962)년 4월에 진행된 조선인민군창건 30돐경축 열병식을 비롯하여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행사때마다 실천적모범으로 수령님을 받들어모시는 혁명전사의 자세와 립장을 보여주시며 대학생들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로작을 전면적으로 학습하는 정연한 체계와 학습목표를 세워주시고 로작학습을 실속있게 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깊이 알도록 하시였으며 계급교양과 반수정주의교양에 힘을 넣어 그들이 그 어떤 조건에서도 로동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속에서 《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하자!》는 구호밑에 높

은 과학지식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준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속에서 혁명적학습관점과 학습기풍을 세워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의 기본임무는 공부를 잘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학생들이 자기의 본분을 잊지 말고 분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0(1961)년 3월 만페지책읽기운동을 발기하시고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만페지책읽기운동은 대학생들이 어버이수령님의 로작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며 전공분야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책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깊이 읽게 하기 위한 대중적책읽기운동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을 사회적실천속에서 리론과 실천을 겸비한 혁명인재로 준비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0(1961)년 4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평양방직기계제작소(오늘의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진행된 생산실습과 같은 해 5월 중순부터 6월초에 걸쳐 와산동－룡성사이 도로확장공사에 참가하시여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학생들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생산실습생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진행한 실습기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26호선반을 다루시면서 공장로동자들을 모범기대창조운동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산실습하실 때 리용하시던 26호선반을 참관하는 학생소년들입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와산동-룡성사이 도로확장공사에 동원된 대학생들과 군인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와산동-룡성사이 도로확장공사에 친히 참가하시여 제일 힘든 작업을 맡아하시면서 대학생들이 로동을 통하여 조직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더욱 단련하도록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을 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집단의 사상의지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시였습니다.

특히 주체51(1962)년 9월 어은동군사야영지에서 열린 당

세포총회에서 하신 결론에서 사상의지적단합이 가지는 중요성을 밝히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민청초급일군들을 고무격려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청초급일군들을 자주 만나시고 민청조직들이 민청원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이 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혁명을 하자면 군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현시대의 정치가는 문무를 겸비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1(1962)년 8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어은동에서 진행된 군사야영훈련에 참가하시여 대학생들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군사야영을 진행하신 어은혁명사적지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사야영기간 다른 동무들과 꼭같이 훈련하고 생활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군사사상과 전법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우리 나라의 실정과 현대전의 특성에 맞는 전투지휘능력과 령군술을 훌륭히 갖추시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주체적인 전법과 그것을 적용하는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전술훈련을 잘하여 실지 싸움에서 써먹을수 있는 풍부한 군사지식과 지휘능력을 습득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학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강의실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교육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이 바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적립장에서 대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내용과 방법에서 주체를 철저

히 세우기 위한 사업의 본질과 과업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과정에 주체의 경제리론에 관한 문제, 민족의 징표문제, 철학의 사명에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들을 새롭게 밝히시고 종래의 그릇된 교육내용들을 바로잡아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대학의 교육행정사업을 개선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혁명활동에 대한 신문보도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시기에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여 대학생들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키우고 대학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는데서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였습니다.

제 16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를 적극 보좌하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 활동을 벌리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를 적극 보좌하시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시고 가일층 심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를 적극 보좌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공직을 가지고있은것은 아니였지만 경애하는 수령님을 몸가까이에서 보좌해드리면서 전당적의의를 가지는 사업을 돌보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업과 중요정치행사가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뜻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

여 적극 힘쓰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하시면서 당조직들이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당사업의 중심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또한 당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조국해방 18돐기념 경축행사를 비롯한 중요정치행사들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수령님을 정중히 모시고 행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세심히 보살피고 지도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를 보좌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다그치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업분야에서 기술개건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남포제련소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농촌기술혁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리현리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친필하신 삭주군의 경제실태자료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1(1962)년 7월 창성군과 삭주군의 지방산업공장들과 협동조합들의 실태를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에 대한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어버이수령님께 보고드리시여 창성련석회의가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대로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문화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우리의 문학예술과 출판보도사업, 체육사업 등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여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를 적극 보좌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인민군구분대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일당백**》의 혁명적구호를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일당백**》구호의 본질과 그 수행방도를 밝히시였습니다.

또한 몸소 인민군부대들에 나가시여 《**일당백**》의 혁명적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2(1963)년 7월 한 비행구분대를 찾으시여 비행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의 하늘을 지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가슴마다에 신념의 불씨를 심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를 적극 보좌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황해남도 신천군을 비롯한 여러 도, 시, 군들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하시면서 전민무장화를 실현하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치도록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보좌활동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쳐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를 더욱 철저히 실현해나가는데서 빛나는 공헌으로 되였습니다.

○ 이 사진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대학시기의 혁명활동자료와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를 보좌하신 혁명활동 주요지역도 그리고 장군님의 혁명사적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종합대학시기에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위대성을 밝히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에 대하여 밝혀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는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 《우리 나라 농업협동화운동의 특징을 원리적으로 옳게 인식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과 말씀들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회주의사상조류를 반대하는 사상리론활동을 힘있게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대수정주의의 발생근원과 반동적본질, 그 해독성과 위험성을 밝히시고 반수정주의

투쟁을 잘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로동계급의 수령을 단순한 개인으로 보는것은 매우 그릇된 견해입니다. 수령은 혁명의 뇌수이며 당과 인민대중의 리익의 최고체현자입니다. 수령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합니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없이는 로동계급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혁명리론의 근본원리들과 주체의 군사사상과 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력사를 주체적립장에서 새롭게 평가하시면서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을 비판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학과론문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데 대하여》의 친필원고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3(1964)년 3월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을 발표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고전적로작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거점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과 그것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고 가일층 심화발전시키신것은 조선을 빛내이며 주체위업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 쌓으신 불멸의 혁명업적입니다.

제 17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며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신 후 주체53(1964)년 4월 당중앙위원회에 오시여 6월 19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이 사진은 당중앙위원회청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혁명의 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에 모신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긍지이고 행복이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 오신 첫 시기에 당사업의 주선에 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고 당사업에서 주선을 바로세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은 수령님의 사상체계를 세우고 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며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는데 집중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과 반당군벌주의자들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 1967년 5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 준비사업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분야에 끼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밝혀내시고 짓부셔버리시였습니다. 그리고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을 조직적으로 폭로분쇄하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였습니다.

또한 인민군대안에서 딴꿈을 꾸는 반당군벌주의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간파하시고 폭로분쇄하시여 인민군대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령도,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상을 밝고 정중하게 모실데 대하여 말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사업의 기본방향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수령관을 세우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리고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뿌려놓은 사상여독을 깨끗이 뿌리빼기 위한 투쟁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시면서 전당적인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나하나 대책을 세워주시였습니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비롯한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량강도일대의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면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잘 꾸리며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진데 대하여 보여주는 자료들과 신문보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수령님의 교시대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황해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회주의적경제리론을 짓부셔버리는데 선차적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수정주의적경제리론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

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6(1967)년 8월 룡성기계공장(당시)을 찾으시여 이곳 로동계급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서서 나가도록 고무추동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조직들이 룡성의 로동계급의 발기에 적극 호응해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업부문에서 자립성을 강화하고 기술개건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며 대안의 사업체계가 은을 나타내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4(1965)년 12월 11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을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서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혁명의 본질과 내용, 문학예술혁명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문학예술혁명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와 **《한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옮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대걸작으로 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예술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가극, 연극, 문학분야에 고전적명작들을 옮기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가극으로 창조하는 사업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되여 우리 시대 가극예술의 고전적본보기가 마련되고 참다운 가극예술발전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 이 사진은 혁명가극 《피바다》의 한 장면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작가, 예술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일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혁

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예술인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부문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워주시고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문학예술건설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제 18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후계자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이 판에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후계자로,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데서 기본은 수령의 후계자를 옳바로 추대하는것입니다.

수령의 후계자는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투쟁을 령도하여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해나갑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령의 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적인 위업입니다.

그런것만큼 수령의 후계자를 옳바로 내세워야 수령이 이룩해놓은 혁명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수령의 의도대로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

습니다.

국제사회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과 교훈은 혁명의 대가 바뀌여지는 시기에 후계자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야심가, 음모가들에 의해 당이 롱락당하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이 중도반단되며 그 명맥이 끊기우게 된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이며 념원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의 후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전무결하게 갖추시고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이시기때문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시였고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예술, 고매한 덕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백두산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 특출한 정치실력과 위인적풍모, 현명성을 실지생활을 통하여 깊이 느끼게

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오래전부터 그이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영명한 지도자동지》로 친근하게 부르며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당조직들과 정권기관, 근로단체, 인민군대, 사회안전기관(당시), 과학, 교육, 문화, 출판보도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모실데 대한 청원서와 편지들을 당중앙위원회에 수많이 보내여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후계자로 추대하려는 념원은 특히 우리 혁명의 1세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이 더욱 절절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이런 한결같은 념원을 깊이 헤아려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표시하시였습니다.

하여 주체63(1974)년 2월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였습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한것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이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민족의 일대 경사로 성대히 경축하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드리는 축원과 기대에 사의를 표시하시면서 동무들이 방금 오늘의 영광이 있어 우리의 미래가 찬란하다고 하였는데 수령님을 떠나서 어떻게 오늘의 행복과 찬란한 래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겠는가, 그 누구도 수령님께서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업적을 대신할수 없다, 나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전사의 한사람이다, 우리모두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더 많은 일을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말씀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다지는 엄숙한 맹세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후계자로,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였습니다.

○ 이 가사는 우리 인민이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감격에 넘쳐 언제나 숭엄하게 부르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입니다.

백두산 줄기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대지의 천만꽃도 그 사랑을 전하고
동서해 푸른 물도 그 업적 노래하네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 지키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시네
자주의 기치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제 19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는것을 자신께서 지니신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시고 일찍부터 그 실현을 위한 심오한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여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 19일 전국

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하신 결론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선포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결론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입니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입니다.》

김일성주의가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라는 고전적정식화에는 **김일성**주의의 진수와 구성체계, 그 근본특징과 력사적지위가 집약적으로 밝혀져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신것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엄숙히 선포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에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면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관한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한다는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김일성주의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김일성주의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것을 말합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서로 뗄수없이 련관되여있는 두가지 본질적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드는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철저히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는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시면서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3(1974)년 4월 14일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새롭게 내놓으시고

그것을 재접수, 재토의하는 사업을 전당적인 대사상전으로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력사상 처음으로 후계자의 지도체제를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로 정식화하시고 그것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삼지연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3(1974)년 3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으시고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나래치게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사람들이 혁명전통에 대한 옳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를 견결히 옹호고수하도록 하시는 한편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정중히 꾸리고 그것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우리 당의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하고있는 학생청년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왕재산혁명사적지와 삼지연혁명전적지를 잘 꾸리기 위한 구상을 펼치시고 몸소 현지에 여러차례 나가시여 건설사업을 지도해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왕재산혁명사적지와 삼지연혁명전적지가 우리 당의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웅장하게 꾸려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천리길답사행군을 발기하시고 청소년들이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을 정기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백두산답사행군대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항일유격대의 혁명적사업기풍을 본받아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항일유격대식학습기풍과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고 항일유격대식생활기풍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 제6차대회를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력사적인 대회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구호를 내보내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각계각층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도록 하시면서 100일전투를 벌려 주체69(1980)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당 제6차대회전으로 앞당겨 끝내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 제6차대회와 당창건 35돐을 경축하는 평양시군중시위와 집단체조, 야회와 예술공연을 높은 수준에서 큰 규모로 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일심단결을 보여주는 청년들의 기발대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2차회의에 참석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정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주권기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제를 튼튼히 세우도록 하시고 아래에 대한 장악지도체계를 세

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정권이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1(1982)년 3월에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세상에 내놓으시였습니다.

이 로작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였으며 그 원리를 더욱 심화발전시킨 주체사상의 총서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도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을 끊임없이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주체철학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히시였습니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은 더욱 발전풍부화되면서 온 누리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 이 사진은 온 누리에 빛을 뿌리는 주체사상탑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제 20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 커다란 힘을 기울이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8호제강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속도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속도전의 본질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며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그리고 속도전의 기본요구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일을 빨리 해제끼면서도 가장 높은 질을 보장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또한 속도전을 벌리기 위한 기본방도는 사상혁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것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대중이 힘껏 일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며 옳은 조직지도사업을 안받침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두다 속도전 앞으로!》라는 구호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3(1974)년 10월에 력사적인 《70일전투》를 발기하시고 몸소 전투를 조직지휘하시여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심으로써 6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시고 이 운동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지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를 내놓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4(1975)년 11월에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으시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검덕광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지게 하시기 위하여 검덕의 로동계급과 청산리의 농업근로자들이 이 운동의 첫 봉화를 들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숨

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전사회적인 대중운동으로 강화발전됨으로써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본새가 달라지고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더욱 높아지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은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제2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7(1978)년 1월 당중앙위원회편지를 내려보내시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2차 7개년계획수행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2차 7개년계획의 첫해인 주체67(197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공화국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100일전투를 벌리도록 하시여 새 전망계획의 돌파구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가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며 농업근로자들이 주체농법대로 농사를 짓도록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칠골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공업과 수산업발전에도 큰 힘을 넣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리게 하시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게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0년대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1(1982)년 6월에 전후 천리마대고조를 일으켰던것처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다시한번 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하여 가르치시고 김철의 로동계급이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봉화를 들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선 대중을 80년대속도창조운동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리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80년대속도창조운

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고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제3선광장과 서해갑문, 광복거리 등을 일떠세웠습니다. 그리고 간석지개간과 나라의 연료, 동력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경공업과 봉사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며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공업부문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3(1984)년 3월 경공업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마련하시고 경공업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과업을 내놓으시였으며 그해 8월 3일에는 평양시경공업제품전시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평양시경공업제품전시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3(1984)년에 평양과 함흥의 여러 봉사기관들을 찾으시여 일군들에게 봉사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상품공급과 편의봉사사업을 더 잘하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기 위하여 대건설작전을 펼치시고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새로 건설된 광복거리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시에 현대적인 창광거리를 일떠세운데 이어 문수거리, 안상택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들을 일떠세우게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청진시와 남포시, 함흥시를 비롯한 도소재지와 군소재지들, 농촌리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하여 현대적인 극장과 회관, 경기장과 체육관 등을 많이 건설하고 명승지들을 문화휴식터로 잘 꾸리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다시한번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

한 투쟁에로 전당,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 전민이 총동원되여 제3차 7개년계획[주체76(1987)—주체82(1993)]을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창건 40돐에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구호를 보내도록 하시였으며 주체77(1988)년 5월 전국영웅대회소집을 발기하시고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으시였습니다.

전국영웅대회의 호소에 따라 우리 인민은 새로운 200일전투에서도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500여개의 대상건설을 완공하고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90년대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새 전망계획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하시였으며 우리 나라 서부지구 곡창지대의 물문제를 완전히 풀기 위한 물길공사를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여 1년도 못되는 기간에 끝내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90년대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

려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건설된 기념비적창조물들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였습니다.

제 21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문화건설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도록 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평양제1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테제관철을 위한 사업에 떨쳐나서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테제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7(1978)년 6월 몸소 소학교와 중학교의 교수안을 친히 검토하신데 기초하여 그 개선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보통교육부문의 교수내용을 새롭게 갱신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부문 교과서내용을 전반적으로 개작완성하도록 대담한 조치를 취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며 학생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부문에서 학습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며 학교들에서 학습본위, 성적본위로 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학습을 잘하는 학생들과 학급, 학교를 내세우고 학습을 기본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 이 로작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발표하신 고

전적로작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혁명을 일으켜 학교교육사업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새 세대들을 쓸모있는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워내며 우리의 교육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등일반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제1중학교를 본보기단위로 꾸리고 그 모범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을 옳게 구성하고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며 교육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게 하시였습니다.

또한 7.15최우등상을 제정해주시고 그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등교육부문에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양성사업을 개선하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잘 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을 종합대학수준에 따라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들을 급속히 확대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속에 일떠선 현대적인 학교에서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나가고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학생소년들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공작기계전시관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을 힘있게 벌려 과학연구사업에서 집단적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과학연구조건을 보장해주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과학원(당시)을 중심으로 한 과학도시가 일떠서고 최신식실험설비들과 시험공장, 실험기구공장들이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4(1985)년 8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에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방향과 그 실현을 위한 과업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을 더욱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진시키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4.15문학창작단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의 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데 이바지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작품창작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가들이 1970년대에 이룩된 빛나는 성과에 토대하여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더 많이 쓰도록 이끄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항일혁명투쟁시기편)창작이 15권에 걸쳐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였으며 사상예술성이 높은 수많은 소설과 시작품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주체예술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혁명영화 《조선의 별》 야외촬영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혁명영화창작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혁명영화 《조선의 별》을 창작하도록 하시고 예술영화 《군당책임비서》, 《월미도》 등을 세상에 내놓게 하시였으며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조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가극발전의 길을 열어놓으신데 이어 연극혁명을 일으켜 고전적명작 《성황당》과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1당》 등을 《성황당》식혁명연극으로 무대에 옮기는 사업을 지도하시여 혁명연극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용과 교예, 음악, 미술 등 모든 부문에서 눈부신 발전이 일어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함흥구강병예방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3(1974)년 4월 보건부문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주체의학에 기본을 두고 인민보건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갖 병을 미리 막으며 의료일군들속에서 의료봉사사업을 잘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에 따라 예방접종에 참가하고있는 학생들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체육선수들을 고무격려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체육의 대중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체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체육과 국방체육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상전, 속도전, 기술전, 투지전의 방침을 제시하시고 체육의 모든 종목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는 학생들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는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제 22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것을 제일 중대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지도로부터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첫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1960년대말까지 근 10년간 인민군대의 수백개 단위들에 대한 정력적인 현지지도를 통하여 령군

체계를 확고히 세우시였으며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여 선군혁명의 핵심부대, 본보기로 키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선군령도업적을 계승하여 1960년대말에 벌써 령도자로서 군령도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특출한 업적을 쌓으시였습니다.

하기에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지도자로서만이 아니라 최고사령관으로 대하고 받들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를 받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인민군대사업을 맡아 지도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부터 어버이수령님의 선군사상과 선군혁명로선을 정치리념으로 삼으시고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며 인민군대의 사명은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 해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4(1975)년 1월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군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본질은 **김일성**주의를 혁명무력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군대를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만드는것이라고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군 **김일성**주의화의 기본요구는 모든 군인들을 열렬한 **김일성**주의자로 만들며 군건설과 군사활동을 철저히 **김일성**주의요구대로 진행하는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전군을 현대화하여 정치사상적우월성에 현대적기술을 결합하여야 혁명군대를 참말로 무적의 군대로 만들수 있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인민무력부 책임일군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5(1976)년 1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라는 새로운 구호를 제시하시고 모든 군인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도

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충실성교양을 원리적으로 알기 쉽게 하여 이 혁명적구호가 군인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되게 하시였으며 항일혁명선렬들의 충실성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통하여 충실성교양을 심화시키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통한 충실성교양에도 힘을 넣게 하시였습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비롯하여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지휘관들의 군사적자질과 지휘능력을 높이고 군사지휘체계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시여 그 어떤 전쟁도 치를수 있게 튼튼히 준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군사훈련에 특별히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사훈련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5대훈련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금성친위칭호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군적으로 힘있게 벌리게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구분대의 기동연습을 친히 발기하시고 그 준비와 진행 전과정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군인들의 전투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군인들이 《훈련도 전투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식의 훈련방법대로 전투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여 주체적인 전법에 정통한 펄펄나는 싸움군으로 준비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군인들을 고무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기본전투단위인 중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대지도소조활동을 벌려 중대를 강화하게 하시였으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주체74(1985)년 9월 인민군적인 대회를 소집하시고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지도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구분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전군에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 당정치사업을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해나가는 강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세우게 하시였으며 인민군대의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이 당의 유일적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8(1979)년 12월에 진행된 인민군당위원회 제6기 제20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계기로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땅크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산과 강이 많고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과 전투행동들을 빨리 하여야 하는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기동력과 타격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들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새로 만든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빠짐없이 보아주시고 몸소 그 성능도 시험해보시면서 무장장비의 현대화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풀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

시였습니다.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여 온 나라를 소왕청유격근거지처럼 만들자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이고 나의 결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다지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대군인들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우수한 근로자들로 로농적위대대렬을 더 늘이고 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붉은청년근위대를 잘 꾸리고 군사훈련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6(1967)년 7월과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동서해안과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대들을 돌아보시면서 지리적특성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방어진지를 튼튼히 꾸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체72(1983)년 여름에는 새로 진지축성법을 밝혀주시고 그것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우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1(1992)년 2월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울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문헌과 말씀들에서 나라의 방위력

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적극 도와주는것이 사회적기풍으로 되게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대중운동도 더욱 발전시키게 하시였습니다.

또한 제대군관들, 영예군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게 하시고 몸소 은정깊은 사랑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는 그 어떤 침략자도 단매에 쳐물리치고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방위력이 더욱 굳건히 다져지게 되였습니다.

○ 이 사진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과 로농적위대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넘겨주기로 결심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직접적인 제의에 따라 주체80(1991)년 1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2(1993)년 4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으며 주체81(1992)년 4월 20일에는 위대한

장군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력사적인 결정이 채택되였습니다.

○ 이 사진이 그에 대한 신문보도입니다.

제 23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고 해외교포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해외교포운동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이며 새 세대 청년들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략사상을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전략사상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전략사상에 기초하여 남조선애국력량을 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숭미사대주의사상을 뿌리빼고 민족자주의식을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선전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기본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길데 대하여 말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1(1972)년 7월 4일 북남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으로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5대방침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리게 하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민족회의소집을 5대방침관철의 중요한 고리로 보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동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5대방침을 소개한 신문보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반부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지게 하시면서 남조선혁명력량을 늘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동포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력량으로 묶어세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폭넓은 북남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북남적십자회담장소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1(1972)년 7월 판문점회담장소에까지 몸소 나오시여 예비회담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가로놓인 장벽을 허물어버리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체61(1972)년 8월말부터 적십자본회담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진행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분렬의 장벽에 첫 례왕의 돌파구를 열어놓으신데 이어 적십자분야만이 아니라 체육과 예술 등 여러 분야에로 교류의 폭을 더욱 확대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고위급회담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79(1990)년 9월부터 북남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되였으며 주체80(1991)년 12월 제5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다음해 1월에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실현을 위한 정치선전을 강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의 정당성과 현실성을 널리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시여 온 민족과 세계인민들속에서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그리고 련방국가창립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과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

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기치밑에 해내외동포들의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서 선봉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있으며 그들의 영웅적인 투쟁은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있습니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쑈도당의 탄압이 강화됨에 따라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속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지향과 요구, 투쟁기세가 날로 높아갔습니다.

○ 이 사진은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을 반대하여 싸우는 광주인민들과 청년학생들입니다.

주체69(1980)년 5월 광주인민들의 대중적인 봉기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남조선의 파쑈통치지반을 크게 뒤흔들어놓았으며 놈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광주인민들의 대중적인 봉기가 있은 후 남조선에서는 미

제와 그 괴뢰도당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더욱 힘차게 벌어졌습니다.

○ 이 사진이 반미자주화와 생활조건개선을 위하여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로동자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냈습니다.

○ 이 사진이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청년학생들의 군중집회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줄데 대하여 말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3(1984)년 9월 남조선에서 수십만명의 수재민이 생기자 공화국적십자회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동포애적구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라가 갈라져 근 40년만에 처음으로 쌀 5만

석과 세멘트 10만t, 천 50만m와 많은 의약품들이 남조선수재민들에게 전달되였습니다.

○ 이 사진이 공화국정부가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내준 구호물자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해외교포운동을 김일성주의기치밑에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해외동포들과의 사업도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해외동포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며 그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력량으로 결속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대오의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해나가도록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총련일군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이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을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모를 박고 사

업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총련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교육사업을 통하여 자라나는 재일동포 새 세대들을 혁명인재로 키우며 조선사람을 되찾고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잘 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광범한 동포군중을 조직에 묶어세우며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국의 사회주의건설과 자주적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편지전달계주단을 만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에서뿐아니라 조선사람이 살고있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우리 당의 해외교포운동방침을 실현해나가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외동포들이 조선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조선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해외교포들이 기념일과 명절, 큰 대회가 있을 때에는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회주의 조국의 현실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시였습니다.

또한 해외교포들이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이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해외교포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다른 나라에서 살고있는 모든 조선사람들이 전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게 되였습니다.

제 24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현시대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멸망을 앞두고 발악하는 제국주의를 결정적으로 타승하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은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공동의 투쟁과업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선전사업을 세계적

범위에서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출판물을 통하여 주체사상대외선전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5(1976)년 평양에 외국문출판사와 외국문인쇄공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하시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로작을 번역, 출판, 소개하는 사업도 잘 도와주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체67(1978)년에만 하여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로작들이 71만 6 000부가 발행되고 79개 나라의 487개 출판물 5억 9 000만부에 게재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을 대외에 널리 선전하는데서 주체사상신봉자들이 노는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들과의 사업을 잘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각국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사업을 학술적으로 적극 도와주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주체사상연구대표단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주체사상을 배울수 있게 하여주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인디아주체사상연구학회 서기장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이 급격히 늘어나고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광범히 무어졌습니다.

주체67(1978)년 2월에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가 나오고 4월에는 일본 도꾜에 사무국을 둔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되였습니다.

주체사상의 빠른 보급은 반제자주를 위한 세계혁명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실현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며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결정적담보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사회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덩샤오핑(등소평)동지와 담화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중 두 나라 당과 인민의 친선단

결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주체72(1983)년 6월 친히 중국을 방문하시여 조중친선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문기간 중국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 여러차례에 걸쳐 회담을 하시면서 중요한 국제문제들을 놓고 폭넓은 의견을 나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상하이(상해)시민들과 소년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 혁명조직들과의 련계와 접촉을 강화하고 단결을 굳건히 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팔레스티나 야씨르 아라파트대통령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74(1985)년 한해동안에만도 70여차례나 우리 당 대표단이 대외에 나가 여러 나라 정당들과 사업하였으며 90여개의 다른 나라 당대표단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가 쁠럭불가담운동의 성

원국으로 들어가 이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고 반제자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주체64(1975)년 8월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식성원국으로 되였으며 주체68(1979)년 9월부터는 이 운동의 조정위원회 성원국으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이 운동의 근본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정치적으로 단결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할데 대하여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남남협조에 관한 여러 국제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고 그것이 남남협조실현을 추동하는 계기로 되게 하시였습니다.

또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농업발전을 위한 투쟁을 적극 도와주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반제공동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2(1983)년 7월에 평양에서 열린 반제, 친선, 평화를 위한 세계기자대회와 주체75(1986)년 9월에 열린 조선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회의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을 반제공동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도

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또한 주체78(1989)년 7월 평양에서 진행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의 대축전으로 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6(1987)년 9월 고전적로작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에서 현대제국주의의 면모를 전면적으로 해부하신데 기초하여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하고 사회주의는 꼭 승리한다는것을 뚜렷이 밝히시고 세계의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반제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밝히시였습니다.

○ 이 사진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온갖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발전시켜나가자면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리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외국대표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1980년대말부터 1990년초사이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이전 쏘련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헤아려보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 그 불패의 위력의 원천,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의 공동의 투쟁강령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1(1992)년 1월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발표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력사발전의 방향은 달라질수 없다는것을 밝히시고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과 그로부터 찾게 되는 교훈,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는 당들이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로선에 대하여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1(1992)년 4월 평양에서 사회주의를 바라는 세계 70개의 당수들, 당대표들과 진지한 토론과 련계밑에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를 발표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을 반영한 공동의 투쟁강령 평양선언이 채택발표되였습니다.

평양선언의 채택은 사회주의의 재건과 승리를 위한 국제적운동이 맑스－레닌주의가 아니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롭게 출발한다는것을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따라배우고있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선전한 세계 여러 나라 출판물들입니다.

○ 이 사진은 불멸의 꽃 **김정일**화이며 이 사진은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을 참관하는 외국의 벗들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제 25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을 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키워주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나라 청소년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800만 청소년들을 당을 맨 앞장에서 보위하는 결사대로 키워주고계시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청소년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청년동맹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을 총폭탄이 되여 우리 당을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는 청년전위, 소년근위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계승자로 믿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청소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고계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청소년사업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많은 가르치심과 방침을 주시여 청년동맹과 소년단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들이며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보아주신 문건들입니다.

○ 이 사진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청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는것을 청년동맹과 소년단의 총적임무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계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7차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로청 제7차대회를 청년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으로 되게 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대회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주체70(1981)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사로청 제7차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대회가 잘 진행되도록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사로청 제7차대회는 당과 수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조선청년들의 굳센 의지와 신념을 온 세상에 떨친 력사적인 대회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동맹에 우리 식의 독특한 사상교양체계와 조직생활체계를 세워주시고 청소년교양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돌려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청소년교양자료전시회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2(1993)년 2월 청소년교양자료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사로청조직사업과 사상교양사업, 학생청소년사업, 경제사업, 대외사업 등 청년동맹사업에서 지침으로 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소년교양을 위하여 청소년출판기지와 청년중앙회관을 새로 지어주시였으며 사로청 창립 50돐을 맞으며 수많은 방송선전차와 악기들을 선물로 보내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은정깊은 사랑속에 일떠선 금성청년출판사와 청년전위신문사, 청년중앙회관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동맹사업을 매우 중시하시고 언제나 청소년들을 굳게 믿고 높이 내세워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모범적인 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이 강하고 군대가 강하고 사로청이 강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으며 그 어떤 침략자도 때려부실수 있다고 하시면서 청소년사업을 활력있게 벌려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동맹에서 요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바라는것이라면 그 무엇이나 다 풀어주시며 청소년조직에서 대회와 행사를 하여도 온 세상이 들썩하게 성대히 조직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막행사와 조선청년학생대표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려 750여차례의 가르치심과 30여차례의 현지지도를 주시여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국제축전으로 되게 하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우리 나라 청소년운동은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800만 청소년들을 당을 맨 앞장에서 받드는 결사대로 키워주고계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800만의 청소년들이 우리 당을 옹호보위하는 총폭탄이 되게 하려면 사상교양사업을 조금도 늦추지 말고 그들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00만 청소년들을 당을 결사옹위하는 전위대오로 키울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사로청 제8차대회와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주체82(1993)년 2월에 열린 사로청 제8차대회와 주체83(1994)년 6월에 열린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는 우리 나라 청소년운동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대회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사로청 제8차대회에 참석하시여 소년단원으로부터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사로청 제8차대회에 참석하시여 청년대표들에게 크나큰 신임과 사랑을 안겨주시였습니다.

폐막회의에 참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대표들이 다지는 신념의 결의를 몸소 들어주시고 오늘 청년대표들이 500만 청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총폭탄이 되고 리수복이 되여 당을 결사옹위하겠다고 다진 맹세가 좋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 대회장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를 마련해주시고 300만 소년단원들이 청년동맹원들의 뒤를 따라 당의 참된 소년근위대로 억세게 준비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동맹이 청소년들을 총폭탄으로 키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800만의 청소년들이 한명의 락오자도 없이 다 믿음직한 총폭탄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00만의 청소년들을 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자면 청년동맹조직들을 조직력과 단결력, 전투력이 강한 조직으로 튼튼히 꾸리고 동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새

세대들이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혁명의 1세대들이 지니였던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본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할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는 학생청소년들입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의 청소년들을 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키워주시는 조선청년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이십니다.

제 26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로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청년들에게 혁명의 홰불봉을 넘겨주시고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새 세대 청년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지펴올리신

혁명의 홰불을 대를 이어 높이 추켜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이끄시고계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청년들에게 혁명의 홰불봉을 넘겨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당의 일관한 청년중시사상을 틀어쥐고 언제나 청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내세워주어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키워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선배들이 추켜들었던 혁명의 홰불봉을 청년전위들에게 넘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4(1995)년 10월 조선로동당창건 50돐을 뜻깊게 경축하는 청년전위들의 홰불시위에 몸소 참석하시여 대를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선 청년전위들에게 혁명의 홰불봉을 넘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넘겨주신 혁명의 홰불봉에는 새 세대 청년들이 꺼질줄 모르는 혁명의 홰불이 되여 불타는 열정과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안고 당과 수령을 맨앞장에서 결사옹위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우리 당의 청년전위가 되기를 바라시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홰불봉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 청년들이 언제나 높이 추켜들어야 할 투쟁의 홰불, 전진의 홰불, 신념의 홰불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담당자로 억세게 키워주고계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자강도 성간군 성간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89(2000)년 8월 3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간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성간중학교를 찾아주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찾은 학부형의 심정으로 교실과 실험실, 콤퓨터실, 계급교양실 등 교정의 곳곳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토끼기르기에서 모범적인 학생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7.15최우등상》메달과 《〈우리 교실〉문학상》메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학교 전기간 최우등의 성적을 쟁취한 학생들중에서 특별히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7.15최우등상을, 글짓기경연에서 우수한 작품을 낸 학생들에게는 《우리 교실》문학상을 수여하도록 하여주시

였습니다.

○ 이 사진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에 참가한 사로청원들과 소년단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과 전국고등중학교 《7.15최우등상》 수상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소년학생들을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데서 혁명전통교양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헤아리시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도 청소년학생들의 혁명전적지답사행군조직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70돐을 맞으며 전국학생소년들의 답사행군을 조직하도록 하시였으며 행군을 성과적으로 마친 답사행군대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속에서도 학생청소년들속에서 7.15최우등상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시기 위하여 운동발단 10돐이 되는 해인 주체86(1997)년 2월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전국고등중학교 7.15최우등상수상자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을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사로청은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이며 별동대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이 영예로운 칭호에는 청년들을 굳게 믿고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굳센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청년영웅도로건설에 참가한 청년돌격대원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9월에 평양—남포고속도로(당시)를 당창건 55돐까지 건설할것을 발기하시고 이 도로건설을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겨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2년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100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청년건설자들에게 한없는 믿음과 사랑을 베푸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은 청년건설자들은 정대와 함마로 바위를 까내고 마대와 맞들이전을 벌려 장군님의 별동대로서의 위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강

화발전시켜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청년동맹에 수여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영광스러운 청년조직으로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청년운동이 걸어온 기나긴 로정은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빛내이며 전진하고 승리해온 자랑찬 력사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은 오래전부터 청년동맹에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시고싶은 간절한 소원을 품고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의 이 절절한 념원은 조선청년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청년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운동이라는것을 밝히시고 우리 청년동맹을 어버이수령님의 청년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로청창립 50돐에 즈음하여 사로

청대표자회를 마련해주시면서 전체 청년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소망과 의사에 따라 사로청을 어버이수령님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로청의 명칭개칭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사로청대표자회에 참석하시여 사로청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지도해주시였습니다.

주체85(1996)년 1월 17일에 개막된 사로청대표자회에서는 온 나라 청년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일치한 의사에 따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고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 이 사진은 사로청대표자회에서 채택된 결정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사로청대표자회 결정과 관련한 신문자료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청년동맹에 모신것은 조선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로청대표자회 폐막회의에 몸소 참석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청년동맹에 수여하시였습니다.

주체85(1996)년 1월 20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선포를 경축하는 전국청년전위들의 대회가 **김일성**경기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습니다.

○ 이 사진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선포를 경축하는 전국청년전위들의 대회입니다.

참으로 청년동맹에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신것은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특기할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제 27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고계시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있는 구호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새로 내놓으신 구호입니다.

이 구호에는 청년들의 랑만을 지켜주고 꽃피워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은정, 청년들에 대한 당과 인민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붉은넥타이를 매여드리였다》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당의 후비대이며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청소년들속에 계시면서 기쁨도 행복도 함께 나누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학생소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소년학생들과 함께 계시는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해 봄 4월 15일 소년백화원에

나오시여 학생소년들과 같이 나무를 심으시였으며 어느날에는 한 소년단원의 노래를 들으시고 민요를 아주 잘 부른다고 하시면서 그의 손에 사랑의 금시계까지 채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상에 우리 청년들처럼 훌륭한 청년들은 없다고 하시며 청소년들속에서 발휘된 자그마한 소행도 귀중히 여기시고 온 세상이 다 알게 하여주십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꽃피우려고 농촌으로 진출한 청년들,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는 청년들의 소행이 하도 기특하시여 감사를 보내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고 나어린 소년단원이 올린 편지까지 일일이 보아주시고 친필을 보내주신분도 우리의 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높은 칭호와 영예를 안겨주고계십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제정해주신 《**김일성**청년영예상》과 《**김일성**소년영예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끝없는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진 청년전위초상휘장을 청년들의 가슴에 모시도록 해주시고 모범적인 청년동맹원들과 소년단원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과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사랑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창립하신 뜻깊은 날을 청년절로 정해주시고 해마다 성대히 기념하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베푸시는 믿음과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천만금도 아낌없이 돌려주고 계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조국의 미래입니다. 후대들을 위하여서는 천만금도 아까울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는 곳마다에 과외교양기지들을 꾸려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삼지연소년단각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돈을 아꼈다가 어디에 쓰겠는가, 후대들을 위하여 쓰자고 하시면서 경치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들에 소년단야영소를 세워주시고 각 도와 여러 시, 군소재지들에 현대적인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을 지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만경대학생

소년궁전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일떠세워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일떠선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다 건설되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한 정세속에서도 몸소 현지에 오시여 만점짜리집이라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또하나의 기념탑이 솟았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기뻐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이 있기에 경치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에 소년단야영의 기발이 휘날리고 불밝은 학생소년궁전무대에서 학생소년들의 노래소리가 그칠줄 모르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소년들의 학습과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영웅강계장자산제1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92(2003)년 7월 4일 영웅강계장자산제1중학교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콤퓨터소조원들의 콤퓨터솜씨를 친히 보아주시며 학교에 어떤 콤퓨터들을 가지고있는가, 교원들의 콤퓨터지식수준과 학교의 콤퓨터교육

실태는 어떠한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습니다. 그리고 콤퓨터교육을 강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또한 수십대에 달하는 최신식콤퓨터와 여러대의 피아노를 선물로 보내주시는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 학생들에게 철따라 교복과 학용품도 보내주시고 산골마을과 등대마을의 몇명 안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워주시며 통학렬차, 통학뻐스, 통학승용차, 통학배까지 보내주시여 학생소년들이 누구나 마음껏 배우며 생활하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학생소년들에게 줄 학용품견본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글을 쓰다가 연필알이 부러지면 안타까와 할 어린이들의 속마음까지 헤아리시여 수지연필공장을 세워주시고 수지연필이 생산되자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 그 이름까지 붙여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줄 선물옷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소년들에게 안겨줄 선물옷은 제일 좋은것으로 맵시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물옷생산을 친히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도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선물옷차림을 한 학생들을 불러 교복의 형태와 색갈, 무늬까지 일일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교복과 학용품을 받아안고 감격에 넘쳐있는 학생소년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극진한 사랑과 은정속에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행복과 기쁨만을 누리며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습니다.

제 28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한평생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83(1994)년 7월 8일 뜻밖에도 서거하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서거는 우리 민족,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그 무엇으로써도 가실수 없는 최대의 슬픔이였고 가장 큰 상실이였으며 전인류에게 있어서 돌이킬수 없는 크나큰 불행이였습니다. 온 나라, 온 세계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것과 같은 상실의 아픔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비기지 못할 상실의 아픔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서거와 관련되는 모든 사업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만민이 우러러 경모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서거 100일중앙추모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못잊어하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반영하여 추모행사를 엄숙히 거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각계층 인민들이 더 많이 수령님의

령전을 찾아뵙고 굳은 결의를 다지게 하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령전을 찾는 우리 인민들의 흐름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무래도 조의방문기간을 더 연장하여 인민들의 소원을 어느 정도라도 풀어주어야 할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미 발표하였던 애도기간을 더 연장하고 조객을 받아들이는 기간을 늘이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에 7월 17일까지로 정하였던 애도기간을 20일까지로 연기하고 16일까지 받기로 하였던 조객들을 18일까지 계속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에 있는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서도 추모행사를 엄숙히 거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5대륙의 수많은 나라 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을 추모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결식을 비롯한 추모행사를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태양의 모습으로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태양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도록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결식에 모시고나갈 경애하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환히 웃으시는 태양의 모습으로 형상할것을 발기하시고 몸소 그 원본사진까지 골라주시였습니다.

그후 여러차례 태양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하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고 7월 19일 영결식에서 령구차행렬의 앞에 모시도록 하시였습니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을 추모하는 모든 행사장들과 평양시내의 여러곳은 물론 전국각지의 주요군중교양장소마다에 수령님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7월 8일을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로 맞이하는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우리 인민은 해마다 7월 8일이 오면 경애하는 수령님을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관습으로, 민족의 고유한 전통으로 여기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손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야 하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수산의사당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고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길이 모시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랜 기간 사업하시던 금수산의사당을 기념궁전으로 잘 꾸리고 여기에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실것을 발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꾸리기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400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매일과 같이 현지에 나오시여 기념궁전을 꾸리는 사업전반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건설하도록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금수산기념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려졌으며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개관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금수산기념궁전과 금수산지구를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금수산기념궁전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원한 태양의 집으로, 주체의 최고성지로 빛을 뿌리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수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십니다.

수령님께서는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최고뇌수로서, 민족의 태양으로서 영생하고계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신념의 구호를 제시하시여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수령님의 영생에 대한 철석의 신념을 심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영생탑을 건립하게 하시였습니다.

특히 주체85(1996)년 7월 초순 어버이수령님께서 늘 다니시던 금성거리입구에 대형영생탑을 건립할것을 친히 발기하시고 탑이 훌륭히 건립되도록 이 사업을 세심히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어버이수령님을 우리 공화국

의 영원한 주석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저술활동을 벌리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사상리론적업적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였으며 여러편의 영화문헌들을 제작하고 금강산과 묘향산의 명소들과 천연바위들에 수령님을 칭송하는 불멸의 글발을 새기고 력사의 땅 판문점에는 수령님의 조국통일친필비를 건립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념도서편찬사업을 몸소 발기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전 21권으로 된 총서《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최상의 수준에서 편찬발행하게 하시였습니다.

또한 여러 단위들에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현지지도사적비와 친필비를 건립하며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7월 8일에는 주체년호와 태양절을 제정하는 중대한 력사적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주체년호와 태양절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영원히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민족으로, 우리 조국은 영원히 **김일성**조선으로 온 세계에 길이 빛을 뿌리게 되였습니다.

○ 이 사진들은 주체의 최고성지로 높이 솟은 금수산기념궁전과 어버이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시며 대양절과 주체년호를 제정할데 대한 신문보도와 사진,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도서입니다.

이렇듯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뜨거운 마음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땅우에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제 29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켜내시였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하시여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 우리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내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 중대장 및 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이며 사회주의 정치방식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한마디로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독창적인 사회주의정치방식입니다.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는 정치방식입니다.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운다는것은 군사를 나라의 제일중대한 사업으로 여기고 국방력강화에 가장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는것입니다.

선군정치는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정치방식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였습니다.

정치방식이란 정치리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체계를 통털어 이르는 말입니다.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정치방식을 확립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

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옳바른 정치방식을 확립하여야 시대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참다운 정치를 실현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기간의 선군령도, 선군정치를 통하여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울수 있는 조건을 성숙시켜오신데 기초하여 미제와의 대결이 극도에 이른 1990년대 중엽에 이르러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해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계승하고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켜 내놓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정치방식입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은 꽃다발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나가시려는 확고한 결심을 다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직

후인 주체83(1994)년 7월 13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을 몸가까이 부르시고 인민군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령도해오신 조선혁명위업완성에서 주력군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시작도 군대를 가지고 하시였으며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완성과 승리도 군대를 가지고 이룩하려고 하시였습니다, 총정치국에서는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승리에로 령도하여오신 수령님의 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인민군대를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일층 강화하여야 하겠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원칙에서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나가시려는 확고한 결심과 철석의 의지가 담겨져있습니다.

주체84(1995)년 1월 1일 아침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어버이수령님께 경의를 드리신 다음 그길로 인민군대의 한 포병중대(다박솔초소)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시였습니다.

그날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각급 부대와 구분대의 전방지휘소들 지어 최전연에 자리잡은 초소에 이르기까지 전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길, 위험한 길도 가리지 않으시고 다 찾아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해군전투함들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전방지휘소에 오르시여 지형지물과 력량배치상태, 적정을 료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우리 시대,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숭고한 혁명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당과 온 사회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을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로 키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나날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힘차게 맥박치고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육탄정신, 자폭정신을 수많이 목격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완공단계에 들어선 안변청년발전소건설정형을 료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85(1996)년 6월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혁명정신과 위훈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발전소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은 우리 당의 력사와 더불어 후세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군인건설자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육탄정신, 자폭정신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명명해주시였으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그 정신을 따

라배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습니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인민군대의 고결한 혁명정신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3월에 이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하기 위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대책까지 세워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게 되였습니다.

○ 이 사진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울데 대하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사중시의 원칙에서 우리의 국가기구체계를 강위력한 국방위주의 국가기구체계로 개편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정치방식이 하나의 완성된 정치방식으로 되자면 그에 맞게 국가기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를 우리 당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국가기구체계를 군사중시의 원칙에서 혁명적으로 개편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직

후에 벌써 우리의 국가기구체계를 계승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군사중시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편할 구상을 펼치시면서 일군들에게 그 구체적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체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규정한 새 헌법, **김일성**헌법이 채택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여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내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수령님의 뜻대로 인민군대를 틀어쥐고 선군정치를 하여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진군로를 열어놓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과의 정치사상적대결에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성이 강하고 사상적신념이 투철한 전위부대로 키우시였으며 인민군대를 핵

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우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허물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던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보기 좋게 굴복시키고 마침내 적들로부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정치적공약까지 받아내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과의 군사적대결에서도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시였습니다.

선군정치는 그처럼 간고한 시기에 군대를 강화하고 군사를 발전시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위업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게 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세력과의 외교적대결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안아오시였습니다.

전쟁이 터지느냐 마느냐 하는 일촉즉발의 시기에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고 미싸일협상, 고위급회담 등 여러갈래의 외교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로 그 어떤 원쑤도 단매에 쳐물리칠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억제력을 다져놓으시였기때문이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위력을 보여주는 사진 및 신문보도, 미국대통령의 담보서한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하신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면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지킬수 있게 한 력사적인 사변이였습니다.

제 30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혁명의 군사적 진지를 철옹성같이 다지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더욱 강화하고 우리 혁명의 군사적진지를 철옹성같이 다지시고계시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전방초소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키울데 대한 독창적인 군건설사상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이며 나라의 기둥입니다.》

1990년대 중엽 반제군사전선이 혁명의 기본전선으로 변화된 환경은 인민군대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그에 맞게 혁명력량을 재편성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킬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이미 1960년대부터 안속있게 키워오신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종국적으로 완성할 결심을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이라는 사상은 혁명군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군대를 사회주의조국의 믿음직한 수호자로 준비시키며 혁명군대가 사회주의위업전반을 전진시켜나가는데서 핵심부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할것을 요구하는 주체의 혁명적군건설사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우리 식 군대, 당의 군대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모든 군인들을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무적의 싸움군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꽉 들어찬 총폭탄대오로 꾸리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위대성교양을 인민군대안의 정치사상교양에서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 육탄영웅, 자폭용사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 제395군부대 교양실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운 대중운동을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주체85(1996)년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앞에 《전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7련대가 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벌릴것을 발기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목적과 중심과업,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인민군대안에서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를 하달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불패의 전투력을 지닌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조선인민군 제3995군부대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지휘성원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군사기술적자질과 지휘능력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투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일당백의 전투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공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시찰의 길에서 군인들이 진행하는 여러가지 종목의 훈련들을 친히 보아주시고 모든 훈련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주체적립장에서 전투적으로 조직진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장갑보병중대훈련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군사가 제일이고 국방공업이 선차라고 하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몇해사이에만도 국방공업부문 과학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자주 찾으시여 그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시면서 보다 큰 위훈에로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인민군구분대의 전투기술기재성

능을 료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강성대국건설의 제일기둥으로 앞장에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중요대상공사들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시고 그것을 제기일에 훌륭히 완공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농업전선, 전력공업전선, 석탄전선들에 인민군군인들을 파견하시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부단히 늘여나가게 하시였습니다.

인민군군인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 《조국보위도 농업전선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방선을 굳게 지키면서 중요전선, 중요대상마다에 달려나가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키우시는 나날에 전사들에게 한없이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철령령마루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인민군병사와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생활하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길, 위험한 길도 가리지 않으시고 찾아주시

고 군인들의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을세라 깊이 마음쓰시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시찰의 길에서 전사들과 한 약속까지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였다가 어김없이 꼭꼭 지켜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 무적필승의 강철의 대오, 강성대국건설의 제일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전반적방위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1(2002)년 9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국방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그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속에서도 민간무력의 싸움준비를 더욱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면서 민방위훈련을 강화하고 그 질적수준을 높여나가게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미제원쑤놈들을 단매에 족쳐버릴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어가는 붉은청년근위대원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농적위대의 작전전투동원준비를 보다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대책들도 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민간무력은 인민군대와의 협동작전은 물론 자립적으로도 적들을 능히 쳐물리칠수 있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군, 전민이 달라붙어 전국의 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준엄한 시련을 헤쳐나가던 어려운 시기에도 방어시설물공사를 전국적범위에서 중단없이 밀고나가게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방침이 더욱 철저히 실현되여 온 나라가 샤오왕칭(소왕청)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보다 튼튼히 꾸려졌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철저히 갖춘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였습니다.

제 31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당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의 수뇌부를 핵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고계시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자면 당을 튼튼히 꾸리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을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을 영원히 어버이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저술활동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의 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습니다.

또한 당창건 50돐을 뜻깊게 성대히 기념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당건설위업에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길이 빛내이도록 하여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님의 당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안에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지도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전당을 하나와 같이 묶어세우도록 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우고 온 사회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으며 주체84(1995)년 8월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재접수, 재토의하는 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대렬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심중한 주의를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원들의 정치적각성을 높이고 당생활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안에 숨어있던 사상적동요분자들을 비롯한 불순이색분자들을 제때에 적발숙청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수뇌부를 핵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일심단결의 근본핵이며 그것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에 바탕을 두고있습니다. …당과 수령을 한결같이 그리며 따르는것이 곧 일심단결입니다.》

○ 이 사진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와 《혁명적동지애는 일심단결의 기초이며 우리 혁명의 추진력이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령도자를 따르고 높이 받들어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간부들이 당의 령도를 진심으로 받들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어버이수령님만을 받들어모시고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좋은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변함없이 당을 받들고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특히 동지애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의 전통을 계승하여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신사동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령도자를 순결한 량심으로 받들어나가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각이한 년대에 령도자를 진심으로 받들어온 사람들 특히 령도자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안고 자기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나가고있는 90년대의 혁명가, 시대의 영웅들의 빛나는 모범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적극 따라배우게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구봉령에서 성간군도로시설대 김성녀가족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89(2000)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의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인적드문 깊은 산중에서 수십년동안 묵묵히 도로관리원으로 성실하게 일해온 김성녀가족들을 만나시여 자기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동무들과 같은 애국자가 많기때문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민족이 번영하는것이라고, 동무들의 정신세계는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가족소대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김광철영웅의 동생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나날 인민군대안에서 최고사령관과 장병들사이의 혼연일체, 지휘관과 병사들사이의 관병일치, 당원들과 청년동맹원들사이의 당청일치를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하시였습니다.

언제나 인민군군인들을 나의 병사, 나의 아들딸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해도 다 찾으시고 그들이 바라는것이라면 억만재부도 아낌없이 다 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은 전군을 장군님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선군혁명동지들의 대오로 전변시키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일치의 전

통적미풍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민일치사상의 본질적내용과 그 지위를 새롭게 규정해주시고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의 기둥, 주력군인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고 따라배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군민일치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이를 위한 대중운동을 실속있게 벌리게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군대와 인민이 사상과 투쟁기풍에서 완벽한 일치를 보장하고 높은 수준의 군민단합을 이룩하게 되였습니다.

○ 이 사진은 《우리 학교－우리 초소》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는 학생소년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에 사회주의도덕기풍을 확립하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도덕교양을 심화시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숭고한 도덕의리로 깊이 간직하게 하시였으며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치는 미풍을 적극 내세우고 따라배우는 사업을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온 사회의 일심단결은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이 편지를 통하여 긴밀한 뉴대를 맺고 숨결을 같이하고있는데서 뚜렷이 발

현되고 더욱 공고화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가장 공고하고 혁명적인 단결이며 무한대의 힘을 가진 불패의 단결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4(1995)년 1월 1일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보내신 새해친필서한은 군대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화였습니다.

이 친필서한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체92(2003)년 8월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아주신 편지의 총건수는 무려 15만 4 690여건에 달하였습니다. 시련과 난관이 절정에 달하였던 그 엄혹한 시기에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 스스럼없이 편지를 올려 속마음을 터놓고 장군님께서는 그 편지들을 일일이 보아주시며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베푸신것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나라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일심단결의 숭고한 화폭이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친필서한들과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과시하는 홰불행진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진지는 더욱 굳건히 다져졌습니다.

제 32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시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뜻을 받들어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구상을 해왔으며 그 준비를 갖추어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 관철에로 힘있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11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최고사령관명령 제0051호 《**평양시에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을 건설할데 대하여**》를 하달하시고 이 공사를 당창건 50돐기념일까지 완공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당시) 장병들에게 맡겨주시였습니다.

이 투쟁과정에 발휘된 군인건설자들의 결사관철정신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을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강조국건설구상을 펼치시고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만난을 극복해나가도록 전당, 전군, 전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의 위업을 받들어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구상을 안으시고 그 준비를 착실히 갖추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피눈물속에 주체83(199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 아침에 온 나라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자는 내용의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한은 장군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

을 온 세상에 선포한 력사적인 선언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전체 인민이 고난의 행군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가르쳐주시고 숭고한 실천적모범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은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일해야 한다》**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과 말씀들에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고난의 행군정신,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 당면한 난국을 타개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쪽잠과 줴기밥도 달게 여기시며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를 고난의 행군결속의 본보기로 꾸릴 결심을 안으시고 이 도의 모든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1월 대소한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자강땅을 찾으시여 혁

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일하는 과정에 이곳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발휘한 고귀한 투쟁정신을 《강계정신》으로 높이 내세워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자강도에서 새로 건설한 중소형 발전소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강계정신이야말로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전투를 벌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정신입니다. 강계정신을 가지고 투쟁하면 최후승리를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혁명적군인정신의 구현인 강계정신은 우리 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창조된 사회주의수호정신이며 선군시대에 새로운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르게 한 투쟁정신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가 강계정신을 따라배워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전투를 다그쳐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3월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이곳 로동계급에게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 성강의 봉화를 지펴주시고 그 불길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세차게 타번지게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강의 봉화에 이어 라남의 봉화를 지펴주시여 온 나라에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력과 식량문제를 푸는것을 경제강국건설의 중심고리로 설정하시고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에 국가적힘을 집중하면서 도처에서 전군중적운동으로 중소형수력발전소건설을 적극 밀고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민들의 먹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바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량강도 대홍단군에서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황해남도 연안군과 자강도 장강군에서 두벌, 세벌농사의 좋은 경험이 창조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토지정리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위한 첫 포성이 울리고 이 땅우에 국토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졌으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염소떼가 흐르고 현대적인 가금공장들과 양어장들이 건설되게 되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강원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짓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8(1999)년을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진격의 해로 정해주시고 년초부터 온 나라 인민을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로 고무추동하는 선전공세,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더욱 높이 울리도록 하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2의 천리마대진군선구자대회를 비롯한 전국적인 회의들을 소집하게 하시여 그것이 온 나라 인민을 새로운 천리마대진군에로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시였습니다.

또한 이해 7월말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온 나라 인민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구호를 발표하고 그 관철을 위한 접수토의사업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하게 하시였으며 우리 시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도 힘있게 벌리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도록 현지에서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습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와 구성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전국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산을 정상화하고 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이 일어나도록 이끄시였습니다. 그리고 대홍단군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구성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대홍단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련이어 인민군군인들이 건설한 현대적인 가금목장들과 메기공장들도 찾으시여 더 많은 고기와 알, 물고기를 인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습니다.

들끓는 현실속에서 작전하고 대중을 불러일으키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창건 55돐을 맞으며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건설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에 평양—남포고속도로(당시)를 당창건 55돐까지 건설할것을 발기하시고 이 도로건설을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겨주시였습니다.

이밖에도 당창건 55돐까지 안변청년발전소(2단계)와 태천5호발전소를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 이 사진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 및 신문보도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창건 55돐을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 빛나게 결속되고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습니다.

제 33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해외교포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 3대헌장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해외교포운동을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대로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고계시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 3대헌장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계승하여 우리 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적 의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의 3대헌장을 정립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판문점에 모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친필비를 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주체85(1996)년 11월 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거룩하신 존함을 우러르며 친필비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였습니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이것이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8월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정식화하시였습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통일헌장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3대헌장과 조국통일5개방침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사이의 래왕과 접촉, 협력, 교류를 강화하여나가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선 남조선의 각계층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그들을 접견하여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남조선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과 현대아산 정몽헌회장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 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밀고나가시였습니다.

특히 제10차 범민족대회를 통하여 북과 남, 해외의 통일운동세력들의 련대와 련합을 실현하도록 하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이를 위한 구체적방도들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마련하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초에 백두산지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북남사이의 력사적상봉과 최고위급회담을 열데 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상봉이 마련되기까지 여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그 준비사업을 걸

음걸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주체89(2000)년 6월 13일 오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비행장에 나가시여 남조선당국자일행을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남측대표단이 평양에 머무르는 기간 많은 시간을 그들과의 사업에 바치시며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이 북남수뇌상봉과 최고위급회담을 위해 온 남조선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민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당국자와 여러 시간에 걸쳐 단독회담을 하시였습니다.

6월 15일 단독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담아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 이 사진이 북남공동선언입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핵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한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상봉이후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 호상래왕과 협력, 교류사업을 보다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체적인 가르치심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북남상급회담, 북남적십자회담, 북남군사당국자회담, 북과 남사이의 큰 규모의 흩어진 가족 및 친척방문단의 호상래왕, 우리 당 창건 55돐에 즈음하여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들의 평양방문 등이 진행되였습니다.

특히 주체89(2000)년 9월에는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의 공화국북반부에로의 집단적송환이라는 인류사적사변이 일어났습니다.

○ 이 사진은 조국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해외교포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을 강화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총련일군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진군에 발맞추어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4(1995)년 5월 총련결성 40돐에 즈음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신 서한에서 총련의 모든 사업을 어버이수령님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던 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결성 40돐에 즈음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인 서한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한생을 바친 로세대 간부들을 무한히 아끼시며 적극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결성 40돐을 맞으며 평양경공업대학을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으로 명명하도록 하

시였습니다. 그리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조국에 기증한 모든 대상들에 그들의 애국적소행을 길이 전할수 있게 동포들의 이름을 달아 부르거나 애국이라는 말을 붙여 부르도록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이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이고 이 사진들은 김만유병원과 안상택거리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반적해외교포운동을 주체혁명위업에 참답게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최홍희선생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사람이 사는 모든 나라와 지역들에 주체형의 교포조직을 내오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체84(1995)년 2월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결성되였고 주체86(1997)년 9월에는 원동고통련(원동고려인통일련합체)이 새로 결성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모든 해외동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시였습니다.

○ 이 사진이 태양절을 맞으며 지린(길림)육문중학교에서 재중동포들이 진행한 행사입니다.

○ 이 사진은 민족대단결의 기상 넘쳐나는 **김일성**경기장이

며 이 사진은 북남해외동포예술인들의 범민족통일음악회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해외동포들이 **김일성**민족의 한성원이라는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성을 견결히 고수하며 사회주의조국을 옹호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해외교포운동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테두리를 벗어나 조선사람이 살고있는 세계 모든 나라와 지역을 다 포괄하는 광범한 민족적애국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으며 그것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였습니다.

제 34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며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이 판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운동을 새로운 궤도에서 발전시키고 반제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고계시는데 대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운동을 재건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추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11월 1일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는 기회주의에 의하여 일시 가슴아픈 곡절을 겪고있지만 그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당하였지만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의연히 인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 이 사진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사회주의사상리론에 대한 대외선전을 강화하도록 하심으로써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사회주의사상리론이 집대성된 고전적로작들을 번역출판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들이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더 많이 번역출판되여 널리 보급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신봉자들의 국제적인 토론회를 통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사상리론을 널리 선전보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체적인 가르치심과 깊은 관심속에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들이 세계적규모에서 더 활발히 진행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여러 나라 혁명적당들과 혁명가들의 투쟁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 대표단들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이 나라 혁명적당들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하시였습니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재생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여러 나라 정당지도자들과 개별적인사들을 우리 나라에 초청하여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회주의현실을 보여주도록 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볼리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반제자주를 위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모든 형태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 모든 혁명적당들과 굳게 단결하고 적극 협력해나갈것이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을 다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견결히 고수

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6월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 일체화책동의 반동적본질과 그를 반대배격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과업, 방도들에 대하여 완벽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제와 나토의 침략책동에 완강히 대항해나선 유고슬라비아(당시)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시였습니다.

미제는 유고슬라비아정부가 자기의 령토인 꼬쏘보에 나토군을 주둔시킬데 대한 서방측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것을 구실로 이 나라에 대한 군사적침공을 감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평화를 지향하는 현국제관계를 엄중히 파괴한 미국과 나토의 오만한 침략행위를 엄중시하고 준렬히 단죄규탄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반제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투쟁에서 중국, 로씨야와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특별히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쟝쩌민(강택민)주석과 상봉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5월과 그 이듬해 1월에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중국방문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두 당, 두 나라사이의 호상리해와 신뢰, 친선과 협조를 더욱 증진시키고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키며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씨야와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도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조로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방문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0(2001)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로씨야에 체류하시였으며 8월 4일과 5일에 공식방문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모스크바선언》문에 수표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주체91(2002)년 8월 로씨

야련방의 원동지역을 방문하시여 로씨야대통령과 상봉하고 회담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 세기에 들어와 련이어 진행하신 로씨야방문들과 조로모스크바선언의 채택은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력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되였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세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거대한 기여로 되였습니다.

○ 이 사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새 세기 첫해에 중국과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신 로정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국가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자주, 평화, 친선은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우리 당의 대외정책리념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리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체89(2000)년 7월 필리핀과 주체90(2001)년 4월에는 쿠웨이트와 국가관계를 맺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유럽나라들과의 관계도 우리 혁명발전에 유리하게 전환시키도록 하시였습니다.

○ 여기에 모신 사진은 유럽동맹 최고위급대표단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럽동맹 최고위급대표단과 하신 담화에서 우리 나라와 유럽동맹사이의 관계개선과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새 세기 초에 들어와 유럽동맹과 이딸리아, 영국,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그 성원국들이 우리 나라와 련이어 외교관계를 맺게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유럽동맹나라뿐아니라 뛰르끼예, 카나다, 브라질, 뉴질랜드, 바레인 등 세계 많은 나라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 이 사진이 사회주의재건운동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과 날로 높아가는 우리 나라의 대외적권위에 대한 신문보도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이 비상히 높아지고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며 세계평화와 안전, 정의로운 새 세계구도형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제 35 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이 판에 모신 사진은 우리 군대와 인민, 청소년학생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며 세계정치원로이시였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끝없는 행복과 사랑을 안겨주신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해온것은 우리모두의 가장 큰 영광이며 행복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학생청소년들을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기 위하여 우리모두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

겨주시고 크나큰 영광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크나큰 영광과 행복만을 받아안으며 자란 새세대들로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며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에 끝까지 충정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하고 장군님께서 청소년사업부문에 주신 말씀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따라배우자!》라는 구호밑에 공부를 잘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도덕품성을 갖추며 몸을 튼튼히 단련하여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로 억세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영예의 붉은기쟁취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모두다 영예의 붉은기학급, 영예의 붉은기학교를 쟁취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며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본새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걷는 순결한 인간이 되여야 하며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

하는 500만의 총폭탄, 선군시대의 리수복이 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애국헌신으로 지켜주신 성스러운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지키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선생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주체의 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당의 참된 청년전위, 열혈투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장군님혁명활동연구실 도록해설

(중학교 청년동맹원용)

재판

집 필 리정윤
편 집 황상국 장 정 한명신
편 성 정향애 교 정 박명희

낸 곳 금성청년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주체101(2012)년 1월 10일
발 행 주체101(2012)년 1월 15일

ㄱ—15456ㅂ 값 25원